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학위논문

롤즈에 있어서 운의 중립화의 정당성에 대한 고찰

201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서양철학전공
이 현 우
롤즈에 있어서 운의 중립화의 정당성에 대한 고찰

지도교수 황경식

이 논문을 문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서양철학전공
이현우

이현우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8월

위원장 (인)
부위원장 (인)
위원 (인)
국문초록

롤즈의 정의관은 규범적 논의에 우연적 요소가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에 의지하며 이는 ‘운의 중립화(Neutralizing Luck)’라고 불린다. 이 논문의 목표는 운의 중립화가 칸트적 통제 원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고 그에 대해서 가해지는 윤리학적 반론과 정치철학적 반론으로부터 운의 중립화를 완호하는 데에 있다.

이 논문의 2장은 롤즈가 자신의 정의관을 도출하기 위해 운의 중립화를 사용하는 방법과 그 칸트적 기원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먼저 두 증명 과정에서 운의 중립화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논한 다음 이를 해명하는 롤즈의 논의에서 나타나는 운의 중립화가 칸트적 통제 원리와 갖는 연관성을 확인한다.

논문의 3장과 4장에서는 각각 칸트적 통제 원리에 대해 도덕운을 통해 제기되는 윤리학적 반론과 후속 논의를 다룬다. 칸트적 통제 원리에 대한 3장의 반론은 데이글과 윌리엄스에 의해서 제기되었고 이들은 각각 칸트적 직관과 결과주의적 직관을 통해서 규범적 판단이 우연에 좌우된다는 주장인 도덕운(Moral Luck)을 지지하고 이를 통해 통제 원리를 공격한다. 논문의 4장은 도덕운에 대한 확장된 논의를 소개하여 이 논의가 규범성의 영역 전반에 대해서 큰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논문의 5장에서는 주로 롤즈에 대해서 노직이 제기한 두 정치철학적 반론에 대한 해답을 다룬다. 먼저 다룰 반론은 임의적 분배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반론이며 롤즈에 대한 쉘플러의 추상적인 해석을 받아들일때 해소된다. 다음으로는 추상적 정의관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노직의 주장을 다룬다. 이 주장은 정의관이 현실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직관에 의지하며, 이에 대해 롤즈의 입장에서는 추상적인 정의관이 평등의 두 의미간의 우선성을 정해 줄 수 있다는 주장을 통해서 대답하게 된다.

주요어 : 정의, 롤즈, 운의 중립화, 도덕운, 노직, 임의적 분배
학번 : 2010-22962
<목 차>

1. 서론 ........................................................................................................................................... 1

2. 롤즈의 정의관에서 사용되는 운의 중립화와 그에 대한 칸트적 해명 ........................................... 3
   2.1. 차등의 원칙과 운의 중립화 ................................................................. 4
       2.1.1. 차등의 원칙의 중요성 ................................................................. 4
       2.1.2. 차등의 원칙의 도출과정에서 사용되는 운의 중립화 ........... 6
           2.1.2.1. 운의 경감 ................................................................. 7
           2.1.2.2. 재능과 여건의 사회적 공유 자산(common asset)화 ...... 9
       2.1.3. 차등의 원칙의 증명 과정에서 나타나는 운의 중립화 ... 11
   2.2. 운의 중립화가 갖는 칸트적 근거 ......................................................... 16
       2.2.1. 운의 중립화와 통제 원리 ......................................................... 16
       2.2.2. 운의 중립화와 칸트와의 연관성 ........................................... 18

3. 도덕운(Moral Luck)을 통한 운의 중립화에 대한 공격과 대응 .................................................. 22
   3.1. 도덕운을 지지하는 두 주장 ............................................................. 22
       3.1.1. 네이글의 네 가지 운 ................................................................. 23
       3.1.2. 윌리엄스의 발전된 주장과 롤즈에 대한 공격 ............... 25
           3.1.2.1. 도덕운에 대한 윌리엄스의 적극적인 주장 .......... 26
           3.1.2.2. 롤즈에 대한 윌리엄스의 공격 ................................ 27
   3.2. 도덕운의 두 가지 근거 ................................................................. 29
       3.2.1. 윌리엄스의 논의에서 보이는 결과주의적 직관 ............... 30
       3.2.2. 네이글과 칸트적 직관 ............................................................... 32
   3.3. 롤즈의 입장에서 가능한 반론 ......................................................... 34
4. 광범위한 도덕운의 문제와 그 해결의 어려움 .......................... 37
  4.1. 도덕운과 통제 원리를 동시에 받아들이는 안더(Judith Ander)의 주장 ................................................................. 37
  4.2. 통제 원리를 악화시키는 움직임 ........................................ 39
      4.2.1. 아담스(Robert M. Adams)의 비자발적 책임 ...................... 39
      4.2.2. 워커(Margaret Walker)의 혼합적 책임 .......................... 43
  4.3. 도덕운을 통해서 통제 원리를 거부하는 두 입장 .......................... 46

5. 운의 중립화에 대한 정치철학적 공격과 대응 .......................... 50
  5.1. 정치철학적 논의에서 발생하는 도덕운의 문제 ...................... 51
     5.1.1. 정치철학적 논의의 특징과 임의성과의 관계 .................. 51
     5.1.2. 임의적 분배문제로 변형되는 도덕운의 문제 .................. 53
  5.2. 노직과 롤즈가 바라보는 임의적 분배의 문제에 대한 검토 .... 55
     5.2.1. 노직의 역사적 정의이론과 임의적 분배 ..................... 55
     5.2.2. 종국결과(end-result)적으로 해석된 롤즈 이론의 난점  .... 58
     5.2.3. 쉐플러가 해석한 추상적인 롤즈와 임의적 분배의 문제  .... 62
  5.3. 노직의 추가 비판과 롤즈의 대응 .................................................. 66
     5.3.1. 미시적 정의와 거시적 정의 간 구분에 따른 문제 ............. 66
     5.3.2. 정의관과 인격의 통일성 ............................................. 68
     5.3.3. 쉐플러의 롤즈와 임의적 분배의 문제 ............................. 74

6. 결론 .................................................................................. 75

참고 문헌 .................................................................................. 79
1. 서론

우연적으로 일어난 사건은 도덕적 귀책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이 질문에 대한 상식적인 대답은 ‘그렇다’일 것이다. 버스 안에서 앞에 있던 어떤 사람이 실수로, 혹은 급정기와 우연적 원인에 의해 나를 건드렸을 때, 그 행위가 나에게 불쾌감을 주더라도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라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나 말이다. 이와 같은 판단은 우연에서부터 나온 행위는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자연스러운 직관에 의존하며 칸트가 강조하는 ‘선의지’ 개념과도 상통한다. 이 판단을 받아들인다면 규범성은 운이 개입되지 않는 영역의 문제가 된다.

현대의 정의론자 롤즈는 규범성의 영역에 운이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직관에 착안하여 ‘운의 중립화(Neutralizing Luck)’를 자신의 분배적 정의론에서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로 사용한다. 그는 분배적 정의의 문제가 임의적인 여건들에 의해서 강하게 좌우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직관을 받아들어서, 운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라고 할 수 있는 ‘원초적 입장’을 정식화하고, 이 입장에서부터 차등의 원칙을 도출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운의 중립화’는 윤리적, 정치철학적인 측면에서 강력한 반론에 부딪힌다. 이는 운의 광대한 영향력 때문이다. 운의 광대한 영향력을 고려해 보면 ‘운의 중립화’라는 개념이 합당한지, 나아가 그 것을 규범성의 조건으로 여길 수가 있는지를 의심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심은 한편으로는 운의 중립화가 도덕적 귀책의 필요조건이 아니라 윤리적 공격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임의적 분배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정치철학적 공격으로 나타난다.

이 논문의 목표는 롤즈가 사용한 ‘운의 중립화’가 지금 제기된 두 방향에서의 비판에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밝히는 데에 있다. 논문의 1장에서는 롤즈가 정의론의 핵심인 차등원칙을 도출하기 위해 운의 중립화를 핵심적인 요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드러낼 것이다. 운의 중립화에 대한 윤리적 도전과 정치철학적 도전은 각각 2장과 4장에서 나타난다. 2장에서는 도덕운(moral luck)이 존재한다는 네이글의 논변과,
이 논의에 기초해 롤즈를 공격한 윌리엄스의 논의를 살펴보고 이에 대해 롤즈가 할 수 있는 대답을 찾아 볼 것이다.1) 그리고 나서 3장에서는 도덕운에 관한 후속 논의들을 검토함으로서, 도덕운의 문제가 규범성의 근거를 약화시키는 데까지 이르는다는 점을 발휘 것이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정치철학적으로 노직이 제기하는 임의적 분배의 문제를 소개하고 난 후, 롤즈의 이론을 어떻게 해석할 경우에 임의적 분배의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논하겠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롤즈가 말하는 운의 중립화가 대략적으로나마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공격받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운이라는 표현의 의미와 중립화(neutralizing)라는 표현의 의미부터 살펴보자. 운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이를 철학적으로 중요하게 논한 아담스(Adams)의 논의를 따르자면 운은 행위자의 책임의 근거로 생각되는 통제 가능성 또는 자발성이라는 개념과 반대되는 어떤 것이다. 그래서 운이라는 개념의 의미에는 반드시 ‘통제되지 않는’, 또는 ‘자발적이지 않은’과 같은 의미가 들어가게 된다.2)

운의 ‘중립화’는 운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그 의미는 운의 평등화(equalization)와 의미상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 잘 이해된다. 분배적 정의의 문제에서 평등화를 추구하는 평등주의(Luck-egalitarianism)는 계획의 분배상황에 주목하는데, 특히 계획의 분배가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를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선호한다(Hurley 2003: 147). 그래서 운-평등주의는 운에 따른 차이를 사후적으로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함축한다. 그러나 롤즈의 운의 중립화에서부터 나오는 정의의 원칙은 보상의 원칙과 다르다. 롤즈는 애초에 보상의 원칙을 정의의 원칙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Rawls 1971: 100-108) 롤즈가 사용하는 운의 중립화

1) 도덕운은 우연적 요소가 개입되는 상황에서도 규범적 판단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주장이며 네이글과 윌리엄스가 처음으로 주장하였다. 이 주장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본 논문의 3장에서 전개될 것이다.
2) 도덕의 근거로서의 통제 가능성과 자발성을 연결시키는 논의는 아담스에게서 따 왔으며, 운과 통제 가능성이 대치한다는 것은 거의 대다수의 논의자들이 인정하는 바이다 (Adams 1985: 6-9).
는 사후적 분배를 다루는 보상의 원칙과는 달리 정의의 원칙을 결정할 때 임의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역할은 이후의 논의에서 보다 상세하게 이루어질 것이 다.

윤의 중립화에 대한 공격은 윤의 영향력을 받아들이어야 한다는 주장의 귀결로 나타난다. 윤을 중립화하고자 하는 직관은 규범성의 근거로 사용되는 통제 가능성을 연결된다. 윤의 중립화를 강하게 요구하는 직관은 결국 칸트적 통제 가능성에 대한 요청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이 미치는 강한 영향력에 대한 절차적 고찰은 사건에 대한 행위자의 통제 가능성을 거부하게 만든다. 이처럼 윤이라는 개념과 통제 가능성이 라는 개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가 되기에 윤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윤의 중립화를 거부하게 된다.

정치철학에서 윤의 중립화는 '임의적 분배'에 대한 수용 여부의 문제가 된다. 롤즈의 윤의 중립화를 받아들이면 정의론에서 모든 임의성을 거부해야 하므로 임의적 분배 역시 거부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3)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사건에는 윤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며 분배 과정 역시 윤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 다. 그래서 윤의 중립화에 대한 정치철학적 공격은 정의론 안에 어느 정도의 임의적 분배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타난다. 이제부터는 이 공격들을 보다 자세히 검토하기 앞서 윤의 중립화의 의미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롤즈의 정의관에서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해명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롤즈의 정의관에서 사용되는 윤의 중립화와 그에 대한 칸트적 해명

3) 불평등에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이러한 입장은 롤즈를 나름의 발식으로 받아들이는 코헨 또한 받아들이는 입장이고, 우리의 자연스러운 직관에도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보 인다. (Cohen 1989: 932)
이 설의 목표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롤즈의 정의론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인 ‘차등의 원칙’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운의 중립화’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상세히 밝히는 것이며, 둘째는 이에 대한 롤즈의 도덕철학적 근거 제시를 검토해서 이 논의가 칸트적인 책임 개념에서 중요한 통제 가능성 원리와 긴밀한 연결을 갖는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이 두 목표를 위해서 우선 차등의 원칙의 추론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난 뒤, 정의론 이후에 쓰여진 논문에서 나타나는 롤즈의 추가적 해명을 검토하여 운의 중립화를 지지하는 롤즈의 직관이 칸트가 말한 예지계의 도덕적 인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밝힐 것이다.

2.1. 차등의 원칙과 운의 중립화

2.1.1. 차등의 원칙의 중요성

여기에서는 차등의 원칙의 도출 과정에 운의 중립화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검토하기에 앞서, 논의의 중심에 놓이는 차등의 원칙이 어째서 중요함지를 잠시 살펴보겠다. 정의론 전체 논의의 핵심은 정의의 원칙인데, 정의론에서 최종적으로 정식화된 정의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제 1원칙
각자는 모든 사람의 유사한 자유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전체 체계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제 2원칙(차등의 원칙)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가지, 즉
(a) 그것이 정의로운 저축 원칙과 양립하면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고,
(b) 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가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
제 1우선성 규칙(자유의 우선성)
정의의 원칙들은 축적적 시열로 이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기본적 자유는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a) 덜 광범위한 자유는 모든 이가 공유하는 자유의 전 체계를 강화해 야만 하고,
(b) 덜 평등한 자유는 보다 작은 자유를 가진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한다.

제 2우선성 규칙(효율성과 복지에 대한 정의의 우선성)
정의의 제2원칙은 서열상으로 효율성의 원칙이나 독특의 종합의 극대화 원칙에 우선해야 하며 공정한 기회는 차등의 원칙에 우선해야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즉
(a) 기회의 불균등은 보다 적은 기회를 가진 사람들의 기회를 증대해야 야만 하고
(b) 과도한 저축률은 결국 이러한 노고를 치르는 사람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야만 한다.(Rawls 1971: 302-303)

 지금 논의의 대상이 두 우선성 규칙과 정의의 1원칙이 아니라 제 2원칙, 즉 차등의 원칙이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이유는 정의론 전체의 논리 전체 과정에서 두 우선성 규칙이 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것이다. 정의론의 논리의 흐름상 제 1원칙과 제 2원칙에 대한 논의는 책 1부의 「원리론」에서 마무리되고, 제 2부의 논의를 통해서 두 우선성 규칙이 정식화된다. 그러나 정의론에서 롤즈의 핵심적 직관이 나타나는 부분은 주로 「원리론」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우선성 규칙은 정의론의 중심적인 내용이라기 보다는 세부 항목에 해당하기에 내용상 정의의 제 1원칙이나 정의의 제 2원칙과 대등한 중요성을 갖는다고 보기는 힘들다.

차등의 원칙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차등의 원칙이 그 내용상 롤즈의 정의론이 가지는 독특한 특징을 표현하는 정의관이기 라는 점에 있다. 제 1원칙은 각자에게 최대한도의 평등한 자유를 보장해
야 한다는 내용인데, 이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만한 주장이다. 그런데 제2원칙이 표현하는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이라는 주장은 사회적으로 보다 불우한 처지에 놓인 사람에 대한 배려를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배려는 ‘각자의 것들을 각자에게’라는 유명한 표현에서 나타나는 전통적 관점 이상의 무언가를 요구하게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논의에서 롤즈의 관점은 단순히 차등의 원칙이라고만 표현하기도 할 정도로 이 원칙은 롤즈의 정의권의 핵심을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원칙으로 다러진다.

롤즈의 입장의 핵심인 차등의 원칙은 정의론에서 크게 두 가지 과정에서 사용된다. 첫 번째 과정은 최초의 차등의 원칙을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를 정하는 과정이며, 두 번째 과정은 롤즈의 계약론적 관점인 ‘원초적 입장’에서의 선택을 통한 증명 과정이다. 운의 중립화에 대한 롤즈의 직관은 첫 번째 과정에서는 직접적으로, 두 번째 과정에서는 보다 간접적으로 나타난다. 이제 각각의 과정을 살펴보자.

2.1.2. 차등의 원칙의 도출과정에서 사용되는 운의 중립화


2.1.2.1. 운의 경감

4) 롤즈는 ‘증명’이라는 용어를 원초적 입장에 통한 계약론적 추론 과정에 한해서 사용한다. 킴리카는 차등의 원칙에 대한 최초의 기술과 원초적 입장을 통한 추론 과정을 각기 다른 증명으로 간주하고 각각 직관적 기회평등의 주장. 사회계약론 주장이라고 부른다(Kymlicka 2002: 57-67) 여기에서는 정의론에서의 롤즈의 표현을 따르기로 한다.
롤즈가 운의 중립화를 처음으로 드러내는 표현은 운이 경감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우선 이 직관이 나타나는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의의 원칙들에 대한 11절과 12절에서 나타나는 롤즈의 추론을 따라가 보겠다. 여기에서 롤즈는 최초로 전술된 정의의 원칙을 대략적으로 해명한 다음 보다 명료한 의미로 다듬는데, ‘운의 경감’은 두 번째 과정에서 사 용된다.

정의론 11절과 12절의 핵심 논의는 직관적으로 생각되는 나타나는 정의의 두 원칙을 서술하고 이를 해명하면서 다듬는 것이다. 정의의 두 원칙의 최초의 정식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자는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의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체계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둘째,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 록, 즉 (a)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고, (b)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이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Rawls 1971: 60-61).

롤즈는 보다 구체적인 전술을 시도하기 전에 정의의 문제가 커서란 추상적인 원리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겠냐는 질문에 대답하려 한다. 롤즈가 보기에는 정의는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적용되며, 이 사회 구조의 평등을 설명하는 부분과 정당한 자료를 설명하는 부분을 각각 1원칙과 2원칙을 통해서 규제하게 된다(Rawls 1971: 7). 이 두 부분은 각각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규정하고 보장하는 측면과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규정하고 확립하는 사회 체제의 측면이다.5)

평등한 권리를 불평등한 부의 분배보다 우선시하는 이 두 원칙은 분배 상황에 대한 두 가지 해명에 의해서 지지된다. 첫 번째 해명은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적절한 불평등이 있는 사회가 나을 수 있다는 직관을 반영한다. 완전한 평등이 일어난 사회, 즉 사회적 기본 가치

5) 이하의 논의는 정의론 11절 논의의 재구성이다(Rawls 1971: 60-65).
(primary goods)가 모두에게 같은 정도로 분배되도록 구성되어 있는 사회를 생각해 보자. 그리고 이 사회를 어느 정도 불평등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의 처지가 앞의 사회보다 어느 정도 나아진 그런 사회와 대비해서 고려해 보자. 아마도 합당한 정의관은 후자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로즈는 이와 같은 적절한 자동을 인정할 여지를 정의관에 포함시키려 하기에 평등한 권리에 대한 원칙과 적절하고 불평등한 부의 분배의 기준을 기초적 정의관에 대한 최초의 진술의 1원칙과 2원칙으로 표현한다.

두 번째 해명은 적절한 불평등의 한계를 지정해준다. 로즈에 따르면 우리가 가지는 기본적 자유들은 경제적, 사회적 이득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가치들 간의 교환을 적절적으로 정부하게 된다. 이 자연스러운 관란이 적절한 불평등의 한계선을 정해 주며, 이 한계선은 정의의 두 원칙 중 첫 번째 원칙의 내용과 두 번째 원칙에 대한 첫 번째 원칙의 우선성으로 표현된다.

다음으로 로즈는 두 번째 원칙의 애매한 의미를 지적하고 은의 경감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려 한다. 로즈에 따르면 잠정적으로 표현된 정의의 두 번째 원칙에 나타나는 ‘(a)모든 사람들의 이익’이라는 표현과 ‘(b)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이라는 두 표현은 각각 두 가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잠정적인 정의의 제 2원칙은 총 네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라는 표현은 효율성의 원칙 또는 차등의 원칙(최소 수혜자간의 최대 이익)을 의미할 수 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이라는 표현은 ‘제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는 식의 평등’이나 ‘공정한 기회 균등으로서의 평등’ 양쪽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로즈는 이 애매한 두 표현의 의미를 고정시키기 위해 ‘운을 경감’해야 한다는 직관에 의존한다. 로즈는 먼저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효율성’과는 반대되는 ‘차등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로즈에 따르면 한 분배 상태가 효율적이라는 것은 재화의 분배가 파레토의 최적상태에 있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 (Rawls 1971: 67) 파레토의 최적상태란 경제학적으로 투입된 자원을 통해서 최대한의 생산물을 산출

6) 이하의 논의는 정의론 12절 논의의 재구성이다(Rawls 1971: 65-75).
해내는 모든 경우를 일컫는다. 이 모든 경우는 효율성이 극대화된 경우
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분배의 기준으로 한다면 이 점들 중 하나를 ‘임의
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기에 과도도의 최적상태를 모두 동등한 정도로
정의롭다고 말해야만 할 것이다. 이를 받아들이면 재능과 같은 임의적
요소들에 따라 재화의 분배가 대부분 결정되는 사회도 그 사회가 효율적
인 한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데, 이는 운을 경감시키야 한다는 직관과 상
충한다. 그래서 운을 경감하려는 직관에 의해서 ‘모든 사람의 이익’이라
는 많은 효율성이 빠져야 한다.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이라는 두 번째 표현의 의미를 고정시키
때에도 운을 경감하려고 하는 직관이 드러난다. 롤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이라는 표현을 재능이 있다면 출세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먼 운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재능은 어느 정도 운에
의해서 결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
게 개방된’이라는 말은 재능으로부터 독립적인 기회 균등을 의미하는 ‘공
정한 기회 균등’으로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의 정식화를 정당화하는 근거 역시 운을 경감시키려는 직관이다.

2.1.2.2. 재능과 여건의 사회적 공유 자산(common asset)화

그렇게 롤즈는 어느 정도는 운이 경감되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고 우연적 요소에 의해 정해지는 천부
적 재능이나 여건과 같은 요소는 사회의 공유 자산으로 여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운에 대한 롤즈의 두 번째 직관이며, 이 직관은 다른
한편으로 차등의 원칙에 대한 다른 방향에서의 해명에 사용된다.

운을 공유 자산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은 앞에서 나타난 운의 중립
화와는 방향이 다르다. 이 주장은 정의론 17절에서 나타나며, 이 설의
논의는 두 원칙이 ‘평등주의적(egalitarian)정의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
이다.(Rawls 1971: 100). 여기에서 롤즈는 순전히 우천생에 의해서 결정

폴즈는 두 계층으로 나뉘어 있는 사회의 예를 들어 차등의 원칙이 운을 공유 자산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제자 설명하고 이로부터 차등의 원칙을 다시 이끌어낸다. 이때에 한 계층은 이미 천부적 재능이나 여건에서 보다 나은 계층이며, 다른 계층은 그렇지 않다고 가정된다.7) 폴즈의 진술에 따르면 이 상황에서 보다 나은 계층의 기대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의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 과연 합당해졌느냐는 것이 다. 이 나은 계층은 이미 어느 정도의 보답(compensate)을 받은 것인데, 이들에게 유리하게 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합당한 정의의 원칙은 이러한 판단을 만족시키도록 설정되어야 하기에 최소 수혜자에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차등의 원칙을 받아들여야 한다. 차등의 원칙은 운을 동시에 나타나게 될 최소 수혜자들에 대한 배려를 포함하기 때문에 운을 사회적 공유 자산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위에서 밝혔듯이 최소 수혜자에 대한 배려는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라는 표현에 대한 합당한, 즉 운에서부터 중립화된 관점에서 진행된 해석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는 정당한 의미의 사회적 이익이기도 하다. 이처럼 운의 중립화라는 제한은 운을 사회적 공유 자산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의 기반이며, 이 주장은 차등의 원칙에 대한 두 번째

진술을 만들어낸다.

2.1.3. 차등의 원칙의 증명 과정에서 나타나는 운의 중립화

롤즈에 따르면 잡정적인 정의의 두 원칙에 대한 증명은 계약론적 추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의 증명을 본격적으로 논하기에 앞서 우선 여기에서 롤즈가 ‘증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를 잠시 살펴보겠다.

일반적으로 계약론적 관점을 통한 추론은 현대에서 중요하게 사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킴리카와 같은 사람들은 차등의 원칙에 대한 진술도, 차등의 원칙에 대한 계약론적 증명도 동등하게 차등의 원칙에 대한 증명이라고 본다(Kymlicka 2002: 60). 그러므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롤즈가 왜 여기서만 ‘증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정도로 계약론적 논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두 가지로 짐작하고 넘어가기로 하자.


계약론적 추론이 단순히 진술이 아니라 증명이라고 불릴 만한 두 번째 근거는 그 추론이 가정하는 계약적 상황을 가정하게 하는 근거가 근대의 계약론자들이 가졌던 합당한 추론 결과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 있다. 이 점은 롤즈와 칸트의 연결점을 나타내는 부분이기도 하며, 운의 중립화라는 적관의 원천이기도 한다. 이 논의는 도덕적 책임의 근간으로 연급되는 ‘통제 원리(Control Principle)’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에 대
한 논의는 이 설의 다음 부분으로 미루고, 이제 계약론적 논변 과정과 거기에서 나타나는 운의 중립화를 살펴보자.


원초적 입장을 구성할 때 들여가는 운의 중립화는 원초적 입장이 경험으로부터 추상되어 구성된다는 점에서 나타난다. 원초적 입장이 경험에서부터 멀리 떠어져 있음은 크게 이 입장이 전적으로 가상적이라는 특징과, 개별적인 모든 사실에서부터 멀어진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는 특징에서 드러난다. 롤즈에 따르면, 우선 원초적 입장은 역사적 또는 사회적인 자연 상태와는 다른, 전적으로 가상적인 상황이다. 이는 롤즈가 원초적 입장에 대해서 제시하는 최초의 설명에서부터 강조된다. 롤즈는 이를 다음의 구절에서 잘 드러낸다.

이 원초적 입장을 역사상에 설계했던 상태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디구나 문화적 원시 상태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일정한 정의관에 따르게 하도록 규정된 순수한 가상적 상황으로 이해된다(Rawls 1971: 12).
원초적 입장은 이처럼 전적으로 가상적이며, 이 가정은 운을 만들어내는 개별적인 경험적 사실들로부터 자유로운 입장으로 구성하게 하는 롤즈의 의관에서부터 나온다. 당연한 말이지만,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운의 개입이 일어난다. 롤즈는 우선 자신의 원초적 입장이 구체적 현실이 아니라라는 점을 확고히 함으로써, 운의 영향력로부터 자유로운 상황을 표현하려는 것이다.

또한 원초적 입장이 전적으로 가상적이라는 사실은 롤즈의 입장을 계약론에 대한 통상적 비판에서 자유롭게 만든다. 가상적 계약은 어떠한 강제력도 갖지 못한다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계약론에 대한 통상적인 비판은 이미 근대의 철학자인 허이 제기했고 현재까지만 저속적으로 논의되는 비판이다. 그러나 롤즈의 계약론은 단지 평등에 대한 우리의 직관을 보다 명확하게 시험할 가상적 상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초적 입장은 우리의 직관을 명확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도입되는 하나의 장치로 해석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서 롤즈의 계약론은 그에 대한 통상적 비판에서부터 자유롭게 된다.

그러나 이처럼 원초적 입장이 가상적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그것을 운에서 완벽하게 자유롭다고 말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운이 개입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운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가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운에서부터 자유로운 사회로 모든 사건들이 통제 하에 놓여 있는 사회라고 보아야 할 타데, 이런 사회는 신에 의해서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롤즈는 원초적 입장을 보다 확실히 운으로부터 중립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개별적인 사실들을 고려하지 않는 사회를 가정하며 이에 따라 그는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이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을 쓰고 있다고 논한다(Rawls 1971: 136-142). 이 장치는 정의의 원칙들을 선택하려고 할 때에 ‘아무도 우연의 결과나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으로 인해서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해 주는 장치로서 모든 개별적인 경우에 따르는 지식으로부터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을

격리시간(Rawls 1971: 71). 이 장치에 의해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오직 사회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원칙에 대해서만 알도록 가정된다. 무지의 베일이 어떤 정보를 가리키는가에 대한 롤즈의 보다 상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각자는 사회에 있어서 자기의 지위나 계층을 모르며, 천부적 자산과 능력, 지능과 체력, 기타 등을 어떻게 타고나는지 자신의 운수를 모르다. 또한 누구든지 선에 대한 자신의 생각(가치관), 자신의 합리적 인생 계획...또는 자기 심리적인 특성까지도 모르고 있다... 또한 당사자들은 그들이 속한 사회의 특수 사정, 다시 말해 그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이나 문명이나 문화의 수준까지도 모르고 있다... 당사자들이 아는 유일한 특수 사정은 그들의 사회가 그 내용이야 어떠한 정의의 여건하에 있다는 것이다.(Rawls 1971: 137)

지금까지 원초적 입장에 대한 구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운의 중립화를 살펴보았으나, 이제는 이 입장에서 진행되는 계약론적 논변에서 운의 중립화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아보자. 앞에서 말했듯, 계약론적 논변은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이 다양한 정의의 원칙 중 어떤 원칙에 찬성하게 될 지에 대한 논의이다. 롤즈는 원초적 입장에서 다양한 입장과 자신의 정의의 원칙 중 어떤 입장이 선택되지를 다양하게 고찰하는데, 이중 중요한 과정은 정의의 원칙과 평균 효용(average utility)을 주된 원칙으로 삼는 공리주의를 비교하는 과정이다.9) 그리고 운의 중립화는 이 중요한 비교과정에서 가장 분명하게 사용된다.

롤즈가 계약론적 논변에 따라서 원초적 입장의 개인들이 평균 효용 공리주의를 거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이는 무지의 베일에 의해서 공리주의가 필요로 하는 확률적 추론이 어려워진다는 것과, 평균 효용 공리주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전제해야 할 인간관이 부적절하지 않다.

9) 평균 효용 공리주의란 효용의 총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고전적 공리주의가 아니라 공리주의의 1인당 평균 효용 극대화를 도모하는 공리주의이다. 따라서 인구가 증가되면 평균 효용이 내려가는 경우를 거부하며, 롤즈는 이러한 공리주의가 현대적 공리주의의 일반적인 형태라고 생각한다(Rawls 1971: 161-166).
느냐는 비판이다.
원의 중립화는 첫 번째 이유에서 선명하게 나타난다. 평균 효용 공리주의를 평균 효용을 구하기 위해서는 각 사람들이 사회가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된 어떤 경우에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만족을 얻게 될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 그러나 무지의 베일은 이러한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우리를 차단한다. 그래서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대략적 확률에 의해서만 어떤 종류의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우연적인 근거만을 가지고 추론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롤즈에 따르면 운의 중립화에 의하여 정의의 원칙에서는 우연성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운에 기반을 둔 추론을 강제하는 평균 효용 공리주의는 원초적 입장에서 거부되는 것이다.

평균 효용 공리주의를 거부하는 롤즈의 두 번째 이유는 평균 효용 공리주의가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인간관을 요구한다는 점에 있다. 반면 우리가 라플라스의 규칙을 이용하여 평균 효용의 원칙을 정의의 원칙으로 인정하려면, 이 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동일한 심층적 효용 함수’를 가진 개인들로 바라고 있다고 믿어야만 할 것이다(Rawls 1971: 174). 그러나 이러한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개체적인 특성이 없는 인간인데, 이는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초적 입장의 개인들은 비록 무지의 베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개별적인 가치관이 무엇인지는 모르는 상태이지만, 자신이 보통 사람들의 사람들이 그러하듯, 어떤 가치관을 가지기는 할 것이라는 정도의 일반적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가정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평균 효용 공리주의를 거부하는 두 번째 이유에서도 운의 중립화는 간접적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위에 나온 추론에서 평균 효용 공리주의를 거부하기 위해서 쓰이는 근거는 주로 원초적 입장의 당사

자가 합당하게 내릴 판단이다. 그런데 원초적 입장은 구성하는 데에 이 미 운의 중립화가 개입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도 간접적으로 운의 중립화가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주로 이 두 이유에 의해서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평균 효용 공리주의를 거부하고 롤즈의 원칙을 정의의 원칙으로 승인하게 된다.11)

이처럼 차등의 원칙을 정의의 원칙으로 받아들이는 두 과정에서 운의 중립화는 핵심적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운의 중립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차등의 원칙에 대한 롤즈의 주론은 큰 난점을 갖게 된다. 그런데 도덕적 책임에 대한 현대의 몇몇 논의는 운의 중립화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칸트적인 ‘통제 원리’를 가부한다. 다음 절에서 는 통제 원리와 반대되는 도덕운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이러한 논의를 살펴볼 것인데, 이 논의를 직접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운의 중립화와 통제 원리에 기반한다는 점과 통제 원리가 도덕에 기반에 대한 칸트적 관점에 의해 해명된다는 점을 살펴볼 것이다.

2.2. 운의 중립화가 갖는 칸트적 근거

2.2.1. 운의 중립화와 통제 원리

앞에서 살펴보았듯, 롤즈는 운의 중립화를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는데, 이 두 의미를 하나로 묶어 주는 핵심 개념은 도덕의 근거로 제시되는 ‘통제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운의 중립화는 현명으로는 분배가 임의 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거부하는 소극적 의미로 쓰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운을 사회적 공유 자산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대처 방향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의미로 쓴다.

특히 적극적인 의미의 운의 중립화는 롤즈가 생각하는 정의와 규범성 간의 연결점을 보여준다. 롤즈가 보기에 자연적으로 결정되는 운은 인간

11) 롤즈는 다른 부분에서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이 차등의 원칙을 받아들일 만한 이유를 몇 가지 더 제시하지만, 여기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논의만 소개하기로 한다.
의 힘으로는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정의의 대상이 아니라 단지 자연적 사실이다. 그래서 정의의 문제는 우연에 좌대한 적절하게 대처하는 문제로 한정된다. 이는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법위 안에서만 규범성을 말할 수 있다는 데도이며, 이 때 롤즈는 책임을 귀속시키기 위해서 행위자 가 ‘달려 할 수 있어야 했다.(Could have done otherwise)’는 말로 대표되는 통제 가능성을 운의 중립화라는 말을 통해 정의의 문제 안에 받아 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 통제 가능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통제 원리’가 될 것이다:

통제 원리(Controll Principle): 우리는 오직 우리가 우리의 통제 하에 달려 있는 것들로 평가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도덕적으로 평가 가능하다.(We are morally assessable only to the extent that what we are assessed for depends on factors under our control.)12)

차등의 원칙을 정당화하는데 쓰이는 운의 중립화의 다양한 사용이 통제 원리에 의해서도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운의 중립화와 통제 원리 사이의 높은 연관을 볼 수 있다. 우선, 운이 우리사회의 기본 가치들의 분배를 전적으로 결정하게 되거나, 혹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는 이 원리에 어긋난다. 운에 의해서 결정되는 선천적 재능이나 여건들은 우리의 통제 하에 달려 있는 것들이 아니므로, 그 영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은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재능이나 여건을 가진다는 그 자연적 사실 자체는 우리의 통제 하에 있지 않지만, 그 여건들을 분배할 사회를 구성하는 원리를 세우는 것은 우리의 통제 하에 달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12) ‘통제 원리’라는 표현은 스탠폴드 철학사전과 워커의 논문 등 여러 논의에서 사용되는 표현이다. 유사한 표현으로는 통제 조건(Control condition)이 있다. 도덕운의 문제를 최초로 제시한 네이글 역시 통제를 벗어난(beyond one’s control)경우에서 운의 문제를 찾으며, 자발성과 통제 가능성을 연결시킨 아담스 역시 비슷한 직관을 공유한다. 논의에 참여한 사람들의 표현은 각각 다르지만, 모두 통제 가능성과 책임 간의 연관,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운과 관련된 경우를 든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동일하다고 생각된다.
우리의 통제 하에 있는 원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를 생각해 보면, 차동의 원칙이 따라 나온다는 것이다.

그러서 롤즈의 정의론과 도덕적 책임은 간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도덕적 책임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직관은 운이 어aviest 중립화되어야 할지를 해명하며, 동시에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운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대략적으로 정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롤즈에 따르면 이 통제 원리는 원리에 대한 칸트적 인격과 간밀한 연관이 있다.

2.2.2. 운의 중립화와 칸트와의 연관성

여기에 대해서 정의론에서 눈을 돌려서, 그 이후에 쓰여진 롤즈의 논문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롤즈가 받아들이는 통제 원리와 칸트적인 도덕적 인격간의 연관성은 원초적 입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쓰여진 논문인 "Kantian constructivism in Moral Theory"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롤즈가 계약론적 논변에 대한 공격에서부터 스스로의 입장을 변호하려고 쓴 논문이다.

정의론의 발표 이후에 롤즈의 계약론적 논변에 대해 제기된 공격은 크게 그 합리성에 대한 비판과 합당성에 대한 비판 두 가지로 나뉜다. 원초적 입장의 합리성에 대한 비판은 원초적 입장에서의 개인들의 추론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고, 합당성에 대한 비판은 원초적 입장이라는 근거가 도덕적 직관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이미 살펴보았듯이 운의 중립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원초적 입장은 그 당사자가 차동의 원칙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만들어져 있기에, 이것이 비합리적인 추론일 수는 없다. 그래서 원초적 입장에 대한 롤즈의 해명은 그 전체인 운의 중립화의 합당성에 그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는데, 그의 해명을 따라가 보면 통제 원리를 바탕으로 구성되는 원초적 입장과 칸트적으로 요청되는 자율적 도덕성과의 간밀한 연관을 볼 수 있다.

롤즈가 그의 논문에서 계약론적 논변을 해명하기 위해서 밝히는 두 요소는 각각 기본 가치에서의 도덕적 인격 개념과 그에 따른 자율성에 대한 강조이며 이 두 요소는 그와 칸트 사이의 유사점을 드러낸다. 그의 논문에서 논하는 ‘기본 가치’에서의 도덕적 인격 개념에 대한 해명이란 풀어서 말하자면 원초적 입장이 도덕적으로 합당한 개인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는 원초적 입장이 단지 합리적이지만 한 개인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앞서 보기에, 롤즈가 원초적 입장에서 합리적 당사자를 가정한다는 점과 그들이 무지의 배임을 쓴다는 점은 상충한다.

합리적인 당사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서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합리적인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개별적인 상황이나 가치관과 같은 것을 알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자신이 할 행동을 정할 것도 당연할 것이다. 이처럼 당연한 생각을 무시하고 설정되는 원초적 입장은 합리성이이라는 개념을 왜곡시켜 수용하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된다.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서 롤즈는 원초적 입장은 처음부터 합당한 관점에서 구성된 입장임을 밝한다. 먼저 롤즈는 원초적 입장에서 논의되는 ‘합리성’이 도덕적 관점과 배치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그에 따르면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이 갖는 합리성은 도덕적 능력(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각자의 최상의(highest) 이해관심에 대해서 내릴 판단이 무엇인지를 고려해 본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최상의 이해관심을 정하는 도덕적 능력이란 곧 자신의 정의나 가치관, 그리고 자신의 최종 목적과 같은 것들을 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즉 원초적 입장은 아직은 어떤 정의관도, 가치관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것들이 자신의 이해관심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있고, 이것들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이해관심을 무작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개인들을 상정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원초적 입장에서 가정되는 ‘합리성’은 도덕적 이해관심까지 포괄하는 개념이 되기에 이와 매치되는 좁은 의미에서의 타당한 합리성과는 다른 개념이 된다.
원초적 임상과 도덕과의 연관은 원초적 임상의 당사자들에게 분배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기본 가치(primary goods)’ 개념을 보면 보다 명백해진다. 분배적 정의의 중심에 두는 롤즈의 정의론에서 그 대상이 되는 기 본 가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분배적 정의의 핵심은 분배의 대상을 당사자들에게 각자의 몫에 맞게 분배할 기준을 세우는 것이기에, 무엇이 분배가 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런데 정의론에서 등장하는 기 본 가치의 규정은 다소 불명확한 것이라. 여기에서 기본 가치는 ‘자존 감의 기반’이자 ‘합리적 인간이 그가 다른 그 무엇을 원하는 상관없이 원 하게 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기본 가치에 대한 롤즈의 추가적인 해명을 보면 원초적 임상을 구상할 때 도덕적 합리성이 포함되었다는 점이 확실하게 드러난다. 롤즈가 메자 규정한 바에 따르면 기본 가치란 ‘일반적으로 인간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도덕적 능력을 깨닫고 행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들의 최종 목적들을 추구하게 하는 데에 필수적인 사회적 조건들이나 다목적적인 수단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변역 및 강조는 필자)

또한 롤즈가 추가적으로 논하는 원초적 임상의 당사자들이 갖는 자율 성 개념을 자세히 보면 이 임상에 포함되어 있는 도덕적 성격이 칸트적 직관에 근거함을 알 수 있다. 이 해명은 타율성이 기초해서 제기될 수 있는 반론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다. 그는 먼저 원초적 임상의 당 사자들이 내리는 결정이 그 정의상 합리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어떤 종류의 열망(desire)이며, 그러한 열망에서 나온 모든 판단은 타월적이라는 반론을 예상한다. 이에 대해서 칸트적 직관을 통해서 대응한다. 롤즈의 표현에 따르면, 원초적 임상의 당사자들은 ‘물이나 음식, 타인이나 다른


15) 롤즈의 설명에 따르면 이 자율성은 엄밀히 말할 때 좁은 의미에서의 자율성이고, 완전한 의미에서의 자율성은 아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는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기에 더 이상 기술하지는 않았다.
집단들에 의한 다른 개별적인 영향들과 같은 낮은 순서의(lower-order) 충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타율적인 존재로 서가 아니라 자율적(autonomous) 존재로 여길 수 있다(Handwerk, 1980: 315).

윤리에 대한 칸드적 입장을 보다 자세히 고찰해 보면 롤즈와 칸트 사이의 유사점은 그가 사용한 표현에서도, 또 이 논문에서 롤즈가 밝히 정의에 대한 관점에서도 드러난다. 그의 열릿 보기에도 그가 사용하는 '최상의 이해관심', '자율적 존재'와 같은 표현에서도 칸트의 영향력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자연적 타율성에 기스르는 '최상의 이해관심'을 가지도록 구성한다는 점이다. 이는 롤즈는 경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최상의 이해관심이 정의의 본질을 이룬다고 보는 것인데, 이 판단은 그 내용상 다음과 같은 칸트적 관점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인간)은 첫째로는 감성세계에 속해 있는 한해서 자연의 법칙들 아래에 있고, 둘째로는, 예로 세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자연에 독립적으로, 경험적이지 않고, 순전히 이상에 기초하고 있는 법칙들 아래에 있는 것이다(GMS, IV452).

이 유명한 표현에서 나타나는 '자연의 법칙들'은 롤즈가 말한 '낮은 순서의 충동'에, '순전히 이상에 기초하고 있는 법칙들'은 롤즈의 '최상의 이해관심'에 각각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처럼 롤즈에게서 정의의 영역은 오직 그의 이상적 법칙에 의해 규제되며, 우연이나 자연적 경향성이 개입될 수 있는 어떤 경험적 측면에 의해서도 방해되지 않을 수 있는 칸트적 도덕의 영역과 겹쳐지게 된다.

이처럼 롤즈가 추가적으로 해명한 두 개념은 그의 계약론적 논변의 토대인 유의 중립화가 도덕에 대한 칸트적 관점과 맺는 것을 연관을 잘 보여준다. 롤즈의 해명에 따르면 롤즈가 가정하는 분배적 정의에서 그 대상인 사회적 기본 가치는 도덕적 능력과 연결되는 개념이며, 또한 원초적 입장의 개인들은 칸트적 의미에서 최상의 이해관심만을 갖도록 가
정되기 때문이다. 
그러서 롤즈가 받아들이는 운의 중립화가 통제 원리를 강하게 받아들이는 칸트적 관점에서부터 나왔다든다. 칸트적 관점에 대한 공격은 롤즈에까지 미치게 된다. 그리고 통제 원리에 대한 공격이 합당하다면 차등의 원칙을 지지하기 위해서 롤즈가 사용된 핵심적 근거가 약해지기 때문이 다. 이 점에 착안하여 이제부터는 도덕운의 존재를 통해 통제 원리에 반대하는 논의와 이로부터 롤즈에게 제기되는 공격과 대응을 자세히 살펴 보겠다.

3. 도덕운(Moral Luck)을 통한 운의 중립화에 대한 공격과 대응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롤즈가 운의 중립화를 차등의 원칙에 대한 추론 과정에서 핵심적 요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운의 중립화는 다시 칸트적인 통제 원리와 긴밀한 관련을 지니기에 롤즈의 차등의 원칙은 통제 원리가 가지는 합당성에 의지하게 된다. 그러나 도덕운의 존재를 근거로 규범성의 근거를 문제삼는 최근의 논의들은 바로 이 적관에 대한 강한 도전을 제기했다. 여기에서는 특히나 통제 원리에 대한 공격을 최초로 논한 네이클과 윌리엄스의 주장과 이 연장선상에서 롤즈에 반해 제기되는 도전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점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들의 공격은 현실적이고 개별적인 인간에 초점을 맞추고기에 가상적인 개인은 다루는 롤즈의 정의론에는 간접적인 영향력만을 가진다고 정리할 것이다.

3.1. 도덕운을 지지하는 두 주장

도덕운이란 행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가 개입되는 상황에서 가능한 도덕적 판단이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도덕운의 존재를 인정하면
통제 가능한 영역에서만 도덕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통제 원리를 거부하게 된다. 도덕운의 존재를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네이글과 웰리엄스이며, 네이글은 크게 많은 사건에 개입되는 네 가지 종류의 운을 들면서 통제 원리를 간접적으로 거부했고, 웰리엄스는 보다 적극적으로 도덕운의 존재를 주장하며 이 논의를 롤즈에 대한 공격까지 확장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롤즈에 대한 윤리학적 공격의 핵심이며 도덕운에 대한 새로운 논의로 이어졌기에 보다 자세히 살펴볼 가치가 있다.

3.1.1. 네이글의 네 가지 도덕운

네이글의 주장을 정리하자면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통제 원리가 운의 강한 영향력과 상충한다는 것이다. 그는 먼저 통제 원리의 직관적 타당성을 인정한다. 먼저 그는 선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윤리형이 상학정초 도입부에서 옳은 것처럼 보인다고 말한다(GMS IV 394)(Nagel 1979: 58). 또한 선의지가 도덕의 핵심이라는 칸트의 말에 의해서 도덕적 판단은 의지, 즉 행위의 의도에 대해서만 내려진다고 해야 할 텐데, 이 역시 일관 보기에 타당해 보인다고 말한다. 그런데 행위자의 의도는 통제 가능한 것이니 여기에만 도덕적 판단이 가능한다는 주장은 인정하는 네이글은 통제 원리의 직관적 타당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 직관과는 달리 도덕적 판단이 일어나는 경우들에 개입하는 통제 불가능한 요소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통제 원리를 거부한다. 네이글은 크게 네 가지로 이 요소들을 분류하는데 이는 보통 결과운(Resultant luck), 환경운(Circumstantial luck), 구성운(Constitutive luck), 인과운(Causal luck)이라고 불린다.16) 이 네 가지 운이 적용되는 범위는 매우 방대하여 상상 가능한 거의 모든 경우에 미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행위자가 전적으로 통제 가능한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도덕적 판단을 인정하려면, 우연적 요소가 개입

16) (Nagel 1979: 60) 네이글은 이러한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으나, 운에 대한 그의 분류는 내용상 이와 같은 이름을 불일 수 있다고 판단되며, 네 가지 운에 각각 이러한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논의에서 통용된다.
어떤 경우에도 도덕적 판단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야 하며 이는 곧 도덕적 판단의 존재를 받아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네이글의 주장은 네 가지 운의 방대한 영향력이 도덕적 판단에 미치는 변화를 그 근거로 삼기 때문에, 이 주장의 옥고 그룹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운의 영향력에 의해서 도덕적 판단이 변하게 된다는 그의 설명을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살펴볼 결과적 운은 동일하게 행동한 두 경우에서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는 운이다. 이는 주로 부주의한 운전사(negligent driver)의 사례를 통해서 설명된다(Nagel 1979: 61). 예를 들어서 빠른 속도로 트럭을 몰고 있는 두 트럭 운전사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한 운전사의 앞에는 아무런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는 자신의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다른 운전사의 앞에는 보행자 신호가 아니었음에도 사람이 갑작스럽게 뛰어들었고, 그는 사람을 치어 죽이게 되었다. 현실에서 이 둘 중 후자는 도덕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둘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같은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이 때 우리는 어떤 통제 불가능한 요소에 영향받는 도덕적 판단을 확인하게 된다.

환경운은 행위가 일어난 때 주변환경의 차이로 인하여 그 행위자가 행하게 되는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를 설명하는 운이다. 네이글은 나치 정권에 협력한 행위자의 경우를 통해서 환경운을 설명한다. 나치 정권에 협력한 어떤 독일인이 있다고 해 보자. 이 사람은 자신이 해외에 있었다면, 혹은 나치 정권이 독일에 수립되지 않았더라면 그는 나치에게 부역하지 않을 것이다(Nagel 1979: 65). 그러나 나치 정권이라는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환경적 요소 때문에 그는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도덕적 비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서도 역시 독일 정권의 수립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요소에 의해서 이 부역자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운들이 행위자와 외적인 경우들과 관련되어서 생각되는 반면, 구성운과 인과운은 행위자의 내적인 부분에도 쉽게 적용된다. 구성운은 행

---

17) 네이글은 네 가지 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지만, 여기에서는 다른 논의에서도 차용되는 사례들에 집중하여 소개하였다.
동이 일어나는 순간에 나타나는 (나를 구성하는 내적인 것들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도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나의 행동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이를테면 고열에 시달리고 있거나, 혹은 정신적 질병, 심지어 심한 기침마저도 행위자의 판단력에 영향을 미칠 것인데 이들은 행위자의 내부에 존재하면서도 그 통제 밖에 있는 것들이다(Nagel 1979: 64). 따라서 나는 내적으로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의해서 내 행동에 영향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인과운은 자유의지와 결정론에 관한 전통적 문제와 상당히 유사한 문제이다. 데이글 역시 인과운은 전통적 문제와 유사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래서 인과운은 행위자가 하는 행동의 원인들 중에는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요소들이 깡어 있다는 식으로 간략히 표현된다.

이처럼 데이글의 주장은 단순히 통제 원리에 반하는 사례가 있다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그에 대한 거부까지 나아간다. 그는 궁극적으로 운의 방대한 영향력에 의해서 행위자가 통제 가능한 영역이 거의 없기 때문에 평범한 경우에 내려지는 도덕적 판단을 지키내기 위해서는 통제 원리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주장이 운의 영향력에 기대어 도덕운을 지지하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시작하는데 비해 윌리엄스는 도덕운의 근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주장에서 시작하여 롤즈에 대한 공격까지 나아간다.

3.1.2. 윌리엄스의 발전된 주장과 롤즈에 대한 공격

윌리엄스는 도덕운의 존재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을 피하면서 그 주장을 위해 운의 중립화를 정의의 핵심으로 받아들이는 롤즈를 공격한다. 윌리엄스는 다소 소극적으로 도덕운을 받아들이는 데이글과는 달리 적절한 윤리설은 도덕운을 그 안에 포함시키길 수 있어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롤즈를 자신의 논적으로 삼는다. 이처럼 윌리엄스가 적극적으로 윤리설에서 도덕운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가 보기에 도덕운이 나타난 사례에서 행위자에게 나타나는 감정이 그 사례에서 강한 ‘규범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3.1.2.1. 도덕운에 대한 윌리엄스의 적극적인 주장

앞에서 정리한 네이글의 주장이 주로 운의 방대한 영향력에 의해서 통제 원리가 요구하는 통제 가능한 경우가 없어진다는 소극적 입장에서 시작한다면, 윌리엄스의 주장은 우연적 요소가 개입될 때 발생하는 자연스럽고 근원적인 도덕적 판단은 인정해야 한다는 적극적 입장임을 그 핵심으로 한다.

이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윌리엄스는 우연이 개입되는 경우에 생기는 특수한 내적 판단에 집중한다. 그는 네이글의 결과적 운을 설명하면서 예로 든 고갱의 사례를 보다 자세히 고려한다. 윌리엄스에 따르면, 결과적 운이 나타나는 사례에서는 하나의 판단이 이루어지는 순간에는 어떠한 방식의 정당화도 가능하지 않고, 단지 사건의 결과에 의해서 앞서 내린 판단에 대한 정당화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앞에서 잠시 나온 고갱의 예에 대입시켜 보면 고갱이 가족을 버리고 화가가 되었다고 하는 판단은 그가 성공할 경우에는 규범적으로 적절한 판단이 되고, 그가 실패한 경우에는 부적절한 판단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정당화는 ‘회고적(retrospective)’이고 이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행위자는 이를 통제할 수 없다(Williams 1981: 24).

지키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들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고, 또한 트럭 운전사가 어떤 모습과 같은 것에 들어 있어서 피해자에게 충분한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하자. 관찰자의 시점에서 우리는 분명히 어느 정도 피해자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이 트럭 운전사는 이제 그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행위자 본인은 약간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트럭 운전사 본인은 스스로 이 불행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후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고, 또 마땅히 그 래야만 할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윌리엄스는 이러한 종류의 자연스러운 후회를 행위자-후회라고 부르며 이 감정은 행위자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만 나타나는 도덕적 판단을 드러낸다고 여긴다.

윌리엄스는 여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 이러한 개념이 윌리스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자 한다고 본다. 정확히 말하면, 그는 도덕에 대한 칸트적인 통제 원리가 윌리스 핵심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윌리엄스가 보기에도 행위자-후회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윌리스는 행위자의 통제 가능성이 여부와 별개로 상황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를 고려할 수 있는 공간을 요구한다. 그런데 칸트적 통제 원리를 윌리스의 핵심으로 받아들이는 윌리스에는 이러한 현실적인 고려가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된다. 이렇게 그는 행위자-후회 개념의 존재에서 시작하여 사건의 결과에 대한 고려가 들어가지 못하는 윌리스는 건전하지 못하다는 주장까지 나아간다.

3.1.2.2. 롤즈에 대한 윌리엄스의 공격

지금까지 윌리엄스는 도덕운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논의하였다. 19) 첫 번째 논의는 도덕운의 체계하는 문제가 행위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도덕적인 평가에서 실제로 중요한 것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이며, 두 번째 주장은 이처럼 ‘도덕적으로’ 중요한 윌리스를 제외시커놓

고는 규범성에 대한 정당한 이론을 세울 수 없을 것이라는 문제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칸트적인 통제 원리를 핵심으로 받아들이는 윤리설을 가부하는 것까지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윌리엄스는 칸트식의 통제 원리를 현대에 받아들이는 롤즈의 이론을 공격하게 된다. 그의 공격은 롤즈의 전체 논의 중에서도 특히 정의론의 후반 논의의 3부의 논의에 집중되는데, 이는 롤즈가 여기에서 통제 원리의 연장선상에서 행위자-후회가 없는 인간을 가정하기 때문이다. 롤즈는 정의론 후반부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산할 수 있는 지성을 갖춘 행위자를 가정한다. 이 행위자는 그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나올 지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있고, 또 그 결과는 실제로 나타나는 그런 행위자이다. 20) 이 행위자는 행위의 의도와 실제 행위의 결과가 다를 수가 없으며, 통제 원리를 완벽히 지키게 된다. 따라서 이 행위자는 윌리엄스가 말하는 행위자-후회라는 감정을 가질 수 없는데, 윌리엄스는 자신의 주장을 지키기 위해서 롤즈의 행위자를 공격하게 된다.

윌리엄스는 이런 행위자를 진전하게 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만약 어떤 자신의 모든 행위의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 계획에서 어떤 것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지를 알 수 있는 행위자가 있다고 해 보자. 그런데 이 행위자가 실제로 단지 계산만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 계획에서의 좋은 것 중을 판단할 수 있으면 그런 행위자는 자신의 가치관을 일생에 거쳐서 단 한번도 바꾸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행위자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자를 가정하는 것은 너무나 도식적인 행위자를 가정하는 것이며, 바로 지금 판단된(from here) 것과 저 미래에서 판단된(from there) 것을 너무나 단순하게 같은 판단으로 만든다는 것이다(Williams 1981: 34-35). 이러한 논변은 도식적이고 가정된, 현실과는 거리가 먼 전제에서부터 어떻게 합당한 도덕적 추론이 가능하겠느냐는 직관적인 근거를 가진다.

20) 정의론의 후반부에서 롤즈는 인생 계획의 선을 무한한 합리성을 가지고 계산하는 행위자들이 결국 자신의 선을 위해서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와한 행위자를 가정하고, 최종적으로는 정의의 원칙이라는 온음의 합성의 행동과의 합치(congruence)를 이루게 된다고 여긴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5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어질 것이다.
또한 윌리엄스의 공격에 가까이 있는 적관을 통해서 롤즈의 전체 논의에 대한 두 가지 공격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첫 번째 공격은 통제 원리의 불건전성에서 시작하는 공격이다. 만일 윌리엄스의 주장처럼 통제 원리에 기반한 윤리성이 대부분의 일상적인 도덕적 판단을 설명할 수 없다면 통제 원리에 기반하는 윤의 중립화 역시 악화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윌리엄스는 도덕적 추론의 근거는 현실적인 인간관이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롤즈의 가정적인 윤리설을 공격할 수도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롤즈는 윤의 중립화를 사용해서 특정 가치관을 지지하지 못하게 하는 무지의 배임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현실적 행위자와 결과를 중시하는 윌리엄스의 적관에 따르면 이러한 판점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다는 질문이 가능할 것이다. 윌리엄스는 우연을 배제하는 상황 속에서 가정된 인간관은 현실에서부터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인간관이고, 그런 인간관을 가정해야 하는 윤리설이 가능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3.2. 도덕윤의 두 가지 근거

여기에서는 윌리엄스의 공격에 대한 롤즈의 가능한 대응을 보기 이전에, 앞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도덕윤의 문제가 가지는 나름의 합당한 근거에 대해서 잠시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 윤의 중립화가 적관적 으로 기부할 수 없을 정도로 합당해 보인다면, 그에 반하는 논의 역시 적어도 그 정도의 적관적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데, 위에 서술한 두 논문에서는 그러한 적관적 설득력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다. 게다가 도덕윤은 윤리학의 근본적인 개념인 결과주의적인 적관과 의무론적인 적관 양쪽을 근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근거를 잠시 살펴보면 도덕윤의 문제가 규범성에 대한 사고에서 중요한 문제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뒤에 보다 자세히 논의될 정치철학적 문제 제기와도 연관이 있다. 우선 윌리엄스의 논의에서 나타나는 결과주

21) 윌리엄스의 주장에 가까이 있는 근거에 대항하여 롤즈의 입장에서 내려지는 최종 평가는 논문의 턱부분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의적 직관부터 살펴보자.

3.2.1. 윌리엄스의 논의에서 보이는 결과주의적 직관

도덕운을 지지하는 가장 직관적인 근거는 도덕운이 나타나는 사례들을 볼 때에 갖게 되는 결과에 대한 고려이고, 이는 말 그대로 결과주의적 직관과 관련이 있다. 이는 특히 윌리엄스가 드는 고갱의 사례에 대한 분석에서 잘 드러난다. 여기에서 윌리엄스는 자신의 분석이 '누군가의 행위의 결과'와 '행위자-후회'라는 두 요소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여기는데, 이 두 표현은 그에 상응하는 결과주의적 직관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Williams 1981: 28). 이는 윌리엄스가 주장하는 결과적 운을 통한 정당화 사례가 행위의 '결과'와 밀어져서 생각될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하며, 또한 현판으로는 행위자-후회에서 나타나는 회고적 (retrospective) 감정은 다른 종류의 결과주의적 직관을 보여준 것으로 여겨져서이다.

윌리엄스가 논하는 고갱의 사례에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가 행위를 정당화한다. 이를테면 이 고갱이 위대한 화가가 되던 직업을 그만두는 그의 선택은 옳은 것이 되고, 그가 별 볼일 없이 그의 인생과 시간을 낭비한 것이 된다면 그의 선택은 그른 것이 되는 사례인 것이다. 이러한 정당화에서는 미래에 나타나는 '결과'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에 따라서 고갱의 사례에 대한 윌리엄스의 설명에는 결과주의가 강하게 개입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윌리엄스는 이 사례에 대한 공리주의적 정당화가 불가능하다고 여기지만 (Williams 1981: 24) 이 주장이 그의 논거인 직관적 결과주의와 상충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공리주의는 결과주의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점에 주목하면 공리주의를 거부하는 윌리엄스가 결과주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윌리엄스가 논하는 공리

---

22) 윌리엄스의 주장을 결과주의로, 네이글의 주장을 칸트적 직관으로 보는 정리는 윌리엄스나 네이글의 주장을 전체를 아우르는 정리는 아닐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는 윌리엄스와 네이글이 보여주는 특징적인 면모를 통해서 도덕운의 문제가 가지는 커다란 두 근거를 보이고자 한다.
주의적 정당화는, 고갱의 선택이 일어나는 그 특정 시점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당화 기준의 후보로 등장한 것이다. 즉 여기에서 공리주의의 거부는 고갱의 사례에서 시간의 변화에 따르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정당화 기준도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의 연장선상인 것이다. 따라서 그가 말하는 공리주의에 대한 거부는 시간이 포함된 결과주의적 직관에 대한 다른 표현일 뿐이다.23


앞에서 고갱의 사례에서 나타난 결과주의가 일반적인 의미의 결과주의라면, 행위자-후회 개념에서 나타난 설명은 도덕적으로 보다 좋은 상태를 추구한다는 의미의 결과주의이다. 도덕적으로 적절한 감정을 가지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만일 순간적으로 부적절한 심적 상태에 있어서 의도나 판단이 좋지 못하였음에도 좋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우리는 안도감과 같은 ‘도덕적’ 감정을 느낄 것이며, 반대로 의도가 적절했을 경우에는 좋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만족감이나 담연함과 같은 ‘도덕적’ 감정을 느낄 것이다. 이처럼 자연스러운 도덕적 감정을 가지는 행위자는 그렇지 않은 행위자보다 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행위자인 것처럼 여겨진다. 이렇게 윌리엄스는 보다 나은 행위자가 되고자 한다면 행위자-후회를 받아들이야 한다고 주장한다.

23) 공리주의의 어떤 형식으로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그가 말하는 결과주의적 직관이 공리주의적으로 설명될 여지를 있다.
또한 윌리엄스가 보여주는 결과주의적 직관은 단순히 이론으로서의 결과주의적 논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직관적인 호소력을 가진다. 여기에서 윌리엄스는 우리가 실제로 느껴 본 결과적 종류의 느낌들이나 감정과 유사한 것에 의존한다. 그리고 그는 결과가 극적이다 하나의 기준이라는 식의 강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현실의 도덕적 판단에서 실제로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식의 보다 약한 주장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이 주장은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근거를 갖게 된다.

3.2.2. 네이글과 칸트적 직관

물론 이러한 직관에 대해서 칸트주의자들이나 롤즈는 윌리엄스가 도덕의 본질에 기스르는 어떠한 논증도 실제로 보이고 있지 않으며, 다만 흔들리기 쉬운 불확실한 직관에 호소할 뿐인 무의미한 주장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들의 입장에서 보기에 윌리엄스는 윤리의 핵심에서 벗어난 결과주의적 근거를 가지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이글이 보여 주는 도덕적 판단에 대한 근거는 위에서 정리된 윌리엄스가 보여준 것과는 달리 오히려 칸트적인 근거를 포함한다. 네이글은 운이 만연하다는 자명한 사실과 ‘당위는 가능’을 함축한다.25)는 직관이 더해질 때 통제 원리와 반대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운의 영향력이 발대하다는 점은 떠오르 운을 고려해 볼 때 상당히 자신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은 중명의 대상이 아니지만 거부하기는 어렵다. 네가 운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외적인 사건과 내적인 사건들 전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내를 둘러싼 모든 환경은 환경운의 영향을 받고 있고, 내가 시도하는 모든 일은 어느

24) 앞에서 다룬 네이글의 논문에서도 아담 스미스의 도덕강조론을 인용하면서 결과와 관련된 느낌을 논하는 부분이 있다(Nagel. 1979: 64).
25) 이 주문한 칸트적 직관을 통해서 롤즈에 반하는 주장의 기본적인 착상은 향경식의 논문 「공정한 경기와 운의 중립화」에서 따왔다. 본 논문에서는 이 직관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나에게 도덕적으로 요청할 수 없다는 단순한 의미로 사용하려 한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칸트적 직관은 통제 원리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도 결과운의 영향을 받는다. 또한 내 안의 내적인 판단이나 이성적 추론도 구성적 혹은 인과적 운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네이글이 제시하는 내 가지 운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우리 생활의 거의 모든 요소가 운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운이 만연하다는 사실과 ‘당위는 가능을 함축한다.’는 적관이 더해지면 통제 원리에 대한 새로운 공격이 나타난다. 율리에 대한 칸트적 적관 중에는 ‘당위는 가능을 함축한다.’는 유명한 적관이 있다. 이는 운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따라난다. 그렇다면 운의 중립화는 당위가 아니게 되고, 따라서 운리의 대상도 될 수가 없게 된다.


‘당위는 가능을 함축한다.’는 칸트적 적관과 관련되어서 생기는 이 문제는 약간의 변형을 거치면 롤즈에게도 적용된다. 자동의 원칙을 실행하는 것, 즉 사회의 기본 구조를 최소 수혜자의 기대치를 최대화할 수 있

---

6) 네이글의 이러한 판단은 그의 논문에서 환경운에 대한 판단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이와 유사한 생각은 다른 운에 대해서도 손쉽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네이글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주장의 근거를 명료하게 정리하지 않고, 또한 그의 주장이 적극적으로 칸트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의 논문의 주장 중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본문에서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도록 만드는 일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여기에 당위는 가능을 함축한다는 칸트적 직관을 받아들인다면 차동의 원칙과 같이 불가능한 원칙 또한 규범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문제는 운을 중립화하려고 할 때에 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만일 우리가 보험과 같은 방식으로 운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대치, 혹은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위의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놀란 일이에 대한 사후적 고려는 일상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롤즈와 같이 정의를 논할 때에 운을 최대한 고려하지 않고, 운을 단지 공유 자산으로 바라보는 범위 안에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 경우 중립화의 의미는 운이 반연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통제 원리와 유사한 칸트적인 직관을 표현하는 원칙이 현실적인 운의 영향력과 결합되면 롤즈가 받아들이는 운의 중립화도 공격받게 된다.27)

3.3. 롤즈의 입장에서 가능한 반론

그러나 만일 도덕운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도덕운의 존재가 칸트적인 통제 원리에 미치는 윤리학적 공격을 인정하더라도 롤즈는 도덕운과 정의의 원칙이 논의되는 맥락의 차이를 들어서 이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 이 회피 과정은 먼저 도덕운에 대한 논의가 롤즈가 정의의 간의 맥락적 차이를 통해 롤즈가 제시할 답변을 생각해 본 다음 도덕운의 존재와 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롤즈에 대해서 수행할 제반문을 갖추어 보며 진행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서 롤즈가 받아들이는 ‘운의 중립화’와 통제 원리 사이의 차이를 보다 선명히 드러내고, 윌리엄스가 수행한 롤즈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도 깔끔 언급하였다.

도덕운의 문제를 제기한 두 사람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주목한다. 네이글과 윌리엄스가 든 사례들 중 도덕운의 논의에 주로 포함되는 사례는 트럭 운전사의 경우, 고객의 경우, 혹은 꽃병의 깨짐과 같은 개별적인 사례들이다. 이런 상황은 비록 사고설정을 통해서 제시되지만, 이와 유사한 경우가 현실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운전 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나, 그와 유사한 의도치 않은 자발적인 실수와 같은 경우를 현실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와는 달리 롤즈가 정의의 원칙을 논하는 맥락은 현실과 동떨어진 맥락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가 정의의 원칙을 설정하기 위해서 가정하는 원초적 입장은 예초에 운이 개입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가상적으로 설정하며, 다시 그 안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운의 영향력에 최대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차동의 원칙이 정해진다. 그리고 롤즈는 명백하게 원초적 입장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 '순수한 가정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논의라는 점을 지적한다 (Rawls 1971: 12)는 것도 앞에서 살펴보았다.

이처럼 논의가 이루어지는 배경의 차이를 통해서 롤즈는 도덕운의 존재를 논의할 때 받아들이게 되는 '운의 만연함'을 거부할 수 있다. 그의 원초적 입장은 비 현실적이고 추상적인 공간이지만 이 공간에서만은 어떤 우연적 요소도 논의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롤즈는 비록 '통제 원리'라는 개인적 윤리에 대한 칸트적 직관에서부터 시작하더라도 그가 다루는 맥락이 규범성 일반의 맥락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성의 맥락이기 때문에, 도덕운이 현실적인 인간에 대해서 제기하는 문제를 다시금 의하면 된다. 그래서 롤즈는 도덕운의 문제는 자신이 라보는 현실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제기되는 문제라고 대응할 것이다.

또한 이처럼 도덕운을 피할 수 있도록 롤즈를 해석하면 롤즈가 받아들이는 운의 중립화의 의미와 칸트적 통제 원리 사이의 차이가 보다 선명하게 나타난다. 일상적이고 개별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도덕운의 문제를 피할 수 있도록 롤즈의 운의 중립화를 해석하면 운의 중립화는 추상적
정의의 영역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이 때 롤즈가 바라보는 운의 중립화는 칸트적 통제 원리의 핵심을 도덕운의 문제로부터 지켜내면서 이를 사회적 규범성의 핵심 논의에 접목시키기 위한 도구가 된다. 결론적으로 롤즈의 정의원칙은 규범성의 근본 원리로 여기는 통제 원리를 그것이 가장 잘 지켜질 수 있는 영역에 엄밀히 적용시키려 노력한 결과가 되며, 운의 중립화로부터 정의에 이르는 이러한 해석은 정의가 ‘사회 제도의 1막목’이라는 롤즈의 주장과도 상통한다(Rawls 1971: 3).

 또한 롤즈에 대한 윌리엄스의 공격은 롤즈의 입장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공격이기에, 롤즈의 입장은 직접적 공격이 될 수 없다. 위에서 살펴보았듯, 그는 주로 정의론 후반부의 완전한 합리성을 공격하는 논변을 전개하지만, 롤즈의 정의론 후반부의 논의는 정의론 전반부에서 진행되는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를 따로 떼어뜨려 놓고 진행되는 논의는 무의미하다. 특히 윌리엄스가 공격하는 롤즈의 ‘완전한 합리성’이란 개념은 정의론 전반부에 나온 ‘좋음’과 ‘올음’에 대한 우선성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완전한 합리성이란 개념은 윌리엄스가 제기하는 것이 유사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으려고 논의된다는 점에서도 윌리엄스의 공격은 롤즈에 대한 부적절한 이해를 보여준다.28

 윌리엄스의 입장에서는 정의론 전반부에서 가정한 추상적 인간관이 불건전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에서부터 정의의 원칙을 추론할 수 없다는 식으로 보다 일반적인 반론을 펼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비판은 다소 간접적인 비판이 되기는 하겠지만 롤즈가 완전히 거부할 수는 없어 보인다. 정의관 수립을 위해서 롤즈와 같은 인간관을 가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심은 이미 도덕운과 관련된 논의 이외에도 다양하게 제기되어 왔다. 윌리엄스가 논하는 것처럼 윌리에 대한 우리의 직관이 이미 도덕운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칸트적인 규범적 직관에서부터 시작한 롤즈의 이론에 대한 간접적 문제 제기 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향으로 롤즈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맥락

28)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그에 대한 롤즈의 답은 본 논문의 5장에서 이어질 것이다.
에서 제기되는 도덕운의 문제가 어떻게 정치철학적인 맥락의 정의의 문제에까지 확장 가능하지가 먼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 착안하여 4절에서는 도덕운에 대한 후속 논의를 검토하여 도덕운의 문제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문제임을 보인 후, 5절에서 분배적 정의의 문제에 적용되는 도덕운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4. 광범위한 도덕운의 문제와 그 해결의 어려움

네이클과 윌리엄스가 도덕운에 대해서 논한 이후, 이에 대한 가지 후속 논의가 전개되었다. 도덕운과 전통적 자유의지의 문제는 둘 다 도덕적 책임의 기반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도덕운에 대한 후속 논의는 자유의지와 결정론에 관련된 입장과 유사하게 정리된다. 즉 도덕운에 대한 논의는 크게 도덕운과 통제 원리가 양립 가능하다는 입장과 양립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나뉘는데, 이는 각각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문제에서 양립 가능론과 양립 불가능론에 상응한다.

여기에서는 이 특징에 주목하여 우선 도덕운과 침체적 통제 원리가 양립 가능하다는 주장은 먼저 살펴본 다음, 이 둘이 완전히 반대되는 것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서로를 약화시키는 입장, 그리고 도덕운의 존재가 통제 원리를 거부하도록 만드는다는 입장은 살펴보고, 각각에 대한 비판을 덧붙이고자 한다.

이 장의 목표는 이러한 도덕운에 대한 다양한 입장에 대한 여러 입장 중 어떤 입장이 가장 타당한지를 판단하기 보다는 도덕운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가능하다는 것과 이 문제가 규범성에 대해 제기하는 난제를 보이 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각각의 이론은 도소간명하게 서술될 것이다.

4.1. 도덕운과 통제 원리를 동시에 받아들이는 안더 (Judith Ander)의 주장
안더는 칸트적인 통제 원리를 지키기 위해 도덕운이 통제 원리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본다. 그에 따르면 책임에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책임과 칸트적 책임 두 가지 의미가 있고 각각은 결과주의적 책임과 통제 원리에 기반한 책임에 대응된다. 즉 안더에 따르면 네이클이 지적한 도덕운은 칸트적인 도덕 개념과는 상충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책임 개념과는 그렇지 않다. 게다가 도덕운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우리의 생각은 다분히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직관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도덕운은 칸트의 직관과 충돌할 필요가 없다.

그는 행위자가 한 사건에 대해서 이 두 책임 개념을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다고 여긴다. 그에 따르면 이 두 책임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동시에(coincide)일어나지만, 돌이켜 잘 생각해 보면 이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두는 독립적으로 작용이 가능하다. 한 사건에서도 칸트적 책임은 있으나 아리스토텔레스적 책임은 없는 경우나 그 반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두 책임이 동시에 작용 가능한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남의 꽃병을 깨뜨린 사례를 들다. 만약 내가 상대방의 꽃병을 깨뜨렸다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책임의 측면에서, 나는 당신에게 그 꽃병을 보상해 주어야만 하는 책임이 있다. 그러나 만약 내가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다면 나는 칸트적 의미에서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내가 악의적으로 꽃병을 깨뜨렸다면 이는 칸트적 의미에서도 책임이 있게 되는 것이다. 반면 내가 꽃병을 깨뜨릴 악한 의도가 있었음에도 소심함이나 성향으로 인하여 꽃병을 깨지 못했다면, 나에게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책임은 없으나 칸트적인 의미에서의 책임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도덕운의 문제에 대한 안더의 양립가능론적인 설명은 불충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이러한 설명은 실천적으로 극단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두 도덕적 기준을 동시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기이한 결과를 낳는다. 이 기이한 결과를 받아들이더라도, 칸트적인 의미의 책임과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의미의 책임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경우가 추가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이 때에 칸트적 이론과 아리스토텔레스적 이론은
그 경우에 도덕적으로 전혀 다른 행위를 지시할 것이다. 그런데 책임에 대한 안타의 설명을 받아들이면 이 행위자는 이 문제되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윤리적 행동도 하나의 책임만을 만족시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그 행위자는 윤리적으로 옳은 행위를 할 방법이 없게 된다. 이렇게 윤리적 달레마가 나타나는 경우에 어떤 책임 개념을 따르자 할 지에 대한 문 제가 미궁 속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도덕적 행위의 미결정성 문제가 안다는 이론에서 따나 나오게 된다.

4.2. 통제 원리를 약화시키는 움직임

도덕운의 문제에 반응하는 또 하나의 유력한 움직임은 일상적인 직관을 다시 해석함으로서 통제 원리를 약화시키려고 시도한다. 이 움직임들 중에서 살펴볼 논의는 비자발적인 책임을 받아들이는 아담스의 논의와, 인간의 자연적인 한계로 인해서 통제 원리에서부터 벗어난 도덕적 개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위커의 논의이다.

4.2.1. 아담스(Robert M. Adams)의 비자발적 책임

아담스는 일상적인 윤리적 책임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통제 원리를 약화시키려 한다는 주장은 처음으로 주장했다. 그의 대표적 논문 중 하나인 “Involuntary Sins”라는 논문에서 아담스는 격렬한 심적 상태에도 행위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통해서 비자발적인 심적 상태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는 우선 그가 생각하는 자발적(voluntary)인 것과 비자발적(involuntary)이라는 용어가 정확히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그의 논변이 어떻게 통제 원리를 축소시키는 논의인지, 그리고 그 논변이 어떻게 가능하지를 보여준다.

먼저 아담스는 격렬한 감정을 가진 심적 상태에 놓이는 것, 그리고 그 때에 행한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고 묻
는다. 아담스의 설명에 따르면 이 심적 상태는 화(anger), 절투(jealousy), 그리고 경멸(contempt)과 같은 것들이며, 행위자가 이런 심적 상태에 놓이면 그는 엄밀한 의미에서 자의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할 수 없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도덕적 전통은 이러한 심적 상태 자체를 나쁜 것으로 취급하는 반면(Adams 1985: 4) 칸트적 도덕적 전통은 그렇지 못하다. 칸트적 도덕적 전통에 따르면 우리는 단지 우리가 자발적으로 행한 것들만이 우리의 책임의 대상이 되는데, 이것이 맞다면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나타나는 감정들은 우리의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 논의를 표현하기 위해서 아담스는 '통제 가능성'을 자발성과 연결시킨다. 그래서 행위자가 통제 가능한 상태는 자발적 상태이고 통제 불가능한 상태는 비자발적 상태이다. 그래서 격렬한 심적 상태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직관을 받아들이면 비자발적인 상태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게 된다. 즉 아담스가 보기에 자발적인 것과 비자발적인 것을 구분하는 문제는 능력심리학(faculty psychology)적인 의미 규정과 같이 과학적인 문제가 아니다(Adams 1985: 7). 지금 논하는 책임의 문제는 윤리학에서의 문제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윤리학적 직관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연결을 받아들이면 비자발적 책임의 존재를 인정할 때 책임의 필요조건으로 통제 가능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 만일 자발적인 것을 어떤 종류의 능동적인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면, 우리가 가지는 격렬한 감정들 역시 자발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발성이 통제 가능성이 연결이 되면 화, 절투, 경멸과 같은 비자발적인 심적 상태는 비자발적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러한 비자발적 상태에 대한 책임이 가능하다면 통제 가능한 경우에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강한 통제 원리를 거부하게 된다.

아담스는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비자발적 감정들을 갖게 되는 심적 상태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이려 한다. 첫째 과정은 어떤 심적 상태는 비자발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며, 둘째 과정은 이 부적
절한 심적 상태에 비자발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아담스는 첫째 과정을 위해서 도덕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집중하여 직접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심적 상태를 가지는 상황이 자발성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부정한다. 격렬한 심적 상태가 행위자의 의도에 의해 통제 가능하다고 말하려면 감정의 인과적인 수련 과정이 행위자의 의도에 달려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 입장에서는 같은 상황에서 통제 불가능한 심적 상태에 빠지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전에 심적 상태에 대한 수련을 '의도적으로' 계획이하였던 점에 주목하여 통제 불가능한 심적 상태에 빠진다는 사적인 의도가 들어간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아담스는 현재의 심적 상태에 대한 이러한 판단이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그가 보기에 우리가 우리의 심적 상태는 수련과 같은 행위로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하며, 이는 마땅히 윤리의 대상이 되어야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통제가능하지 않은 감정이 나타나는 순간에 나타나는 윤리적 판단이다. 이들때면 내가 나의 윤리가 나에게 해준 희생들을 전부 알면서도 내가 여전히 어떤 종류의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에 우리는 나는 행위자가 비난받을 만 하다고(blameworthy) 여긴다. 그런데 이 경우의 비난은 우리는 어떤 역사적이고 인과적인 이유를 파악하고 생겨나는 도덕적 판단이라는 보다는 현재의 심적 상태에서부터 나타나는 비난이다. 이렇게 아담스는 상식적인 도덕적 판단을 명확히 살펴보면 특정 시점에 가지는 부적절한 심적 상태 자체가 도덕적 비난이 된다고 여기며 심적 상태에 대한 인과적 책임을 거부한다.

다음으로 아담스는 두 가지 단계를 거쳐서 부적절한 심적 상태에 대한 비자발적 책임의 존재를 설명한다. 첫 번째 단계는 심적 상태를 도덕의 중요 대상 중 하나로 두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단지 인지적(cognitive)이기만 한 심적 상태에 대해서도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일상적인 직관을 활용하는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도덕의 대상이 단지 행위의 지침이라면(action-guiding) 도덕적 직관을 완벽히 살릴 수 없다는 해명이다. 우리가 부적절한 감정을 교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여기에 심적 상태에 대한 도덕적 직관을 분석해 보면, 비자발적인 심적 상태도 책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아담스의 두 번째 논변이다. 이는 인주차별이나 인간에 대한 침해와 같은 것을 믿는 심적 상태는 비난받을 만하다는 도덕적 직관에 의존하는 논변이다. 이러한 심적 상태는 전혀 특정 욕구 (appetitive)와 관련이 되어 있기도, 또 능동 (conative)적이지도 자발적이지도 않으며, 단지 '인지적 (cognitive)'일 뿐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를 비난한다는 것이다 (Adams 1985: 18) 게다가 이 심적 상태가 생겨난 역사적 원인 역시 통제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사건들이지만, 이전히 우리는 이런 심적 상태를 비난할 만하다고 여기는 직관을 설명하려면, 행위자가 가지는 비자발적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아담스의 추론은 도덕의 대상을 확장시키는 한편 그런 종류의 책임에 대한 실제적 치명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에서는 이런 것을 다루기보다는 보다 실천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아담스는 실천적인 관점에
서 특정한 심적 상태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너무나 자명한 것으로 여기는 직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테면 잘못된 교육과 같은 직접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심적 상태를 그르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단지 우리의 순수한 직관적 이라면, 이는 곤 평등이나 권리에 대한 우리의 실천적인 논의에 대한 직관주의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는 듯한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실천적 기준들에 대한 직관주의적인 태도는 다시 무엇을 통해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인지 확실히 않다. 이러한 기준들에 대한 우리의 직관은 불분명하며, 실천적으로 사람들 간에 수 많은 기준이 있다는 것을 손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만일 아담스의 근거가 직관주의가 아니라면 그는 어떤 종류의 결과주의적 관점들을 취하고 있는 것이 텐데, 이 경우 이어서 우리가 약화된 의미에서의 통제 원리를 받아들이면 할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생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가 마땅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직관적 판단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 있을 것이다.

4.2.2. 워커(Margaret Walker)의 혼합적 책임

워커는 통제 원리를 약화시키기 한다는 주장을 운의 만연함에 기대어 보다 발전시켜서 전개하였다. 그는 도덕적인 판단의 필요조건이 통제 원리가 아니라라는 점을 보여기 위해서 두 가지 해명을 시도한다. 우선 그는 특수한 종류의 덕과 도덕운이 간절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밝히고, 다음으로 도덕운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칸트적 행위자가 이런 덕을 무시하는 기이한 종류의 책임 개념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그는 운이 만연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행위자의 특징을 사용하여 도덕운을 변호한다.

워커가 자신의 논지를 전개하는 데에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는 근거는 우리가 ‘순수하지 못한 행위자(impure agent)’라는 점이다(Walker 1991: 242). 이는 일상 생활의 행위들에서 운이 깨어들지 않는 경우는 없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의 행위는 운에 의해서 좌우되는 요소와 어느 정도 조작 가능한 요소가 혼합되어서 나타난다. 이 두 요소가 어느 정도나 혼합되는데, 반드시 언제나 운의 요소가 개입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그 결과는 선택과 행운의 동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는 우리는 순수하게 능동적인 행위자로 바라볼 수 없게 만든다.


여기에 더하여 위커는 오직 칸트적인 순수한 행위자로서의 자아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기이한 책임 개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논한다. 위커에 따르면 애초에 우리가 가지는 책임 개념은 순수하지 못한 행위자로서의 책임이기 때문에 칸트적인 의미에서의 자아가 가지는 기이한 책임과는 다르다. 그가 보기에 칸트적인 자아는 순수하지 못한 자아가 가지는 일상적 책임과는 두 가지 의미로 다른 책임을 가지며, 이는 도덕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먼저 칸트적 행위자는 그가 지리하고 하는 책임의 범위가 매우 좁아질 수밖에 없다. 칸트적 행위자는 예측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리하고 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종류의 나쁜 결과가 일어나더라도 그는 그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사람을 치어서 죽인 불운한 운전자는 자
신이 왜 잘못이냐는 태도로 나올 것이고, 이는 어떤 종류의 책임이나 후회와 같은 반응을 기대하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책임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그러나 위커의 이러한 접근은 한편으로는 칸트적 행위자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두 번째 논증에서의 책임 개념은 너무 넓게 설정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우리가 칸트의 윤리학적 체계를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위커가 제기하는 그런 비인간적인 도덕적 책임을 받아들이어야 하는지는 확신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가 내 친구의 부인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자연스러운 도덕적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는 확실하며, 내가 내 친구의 부인의 죽음에 어떤 도덕적 책임을 느끼야 하는지는 분명해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칸트주의자들은 그러한 책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통제 원리, 혹은 순수한 행위자가 사용되는 것은 칸트에 대한 과해라고 주장할 것이다. 따라서 순수한 행위자에게 위커가 제시하는 문제 역시 모두가 동의할 만한 해답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4.3. 도덕운을 통해서 통제 원리를 거부하는 두 입장

이제 통제 원리와 도덕운이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통제 원리를 거부해야 한다고 여기는 두 입장을 소개하려고 한다. 이는 레비(Levi)와 무어(Moore)의 입장인데, 이들의 논의에 대한 소개는 도덕운에 대한 문제가 매우 복잡하며, 그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쉽게 찾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더 자세히 보여줄 것이다.

레비는 그의 책 Hard Luck에서 도덕운에 대한 다양한 논변을 통해서 통제 원리와 도덕적 책임 전체를 부정하는데, 그의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아담스의 논의와 반대된다. 그는 몇 단계의 논변을 통해서 책임에는 통제 원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도덕운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이를 거부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가 주장하는 도덕적 원리는 의지박약(akrasia)을 인정하지 않는 한편 도덕적 비난보다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소크라테스의 그립과 유사한 형태가 된다. 나아가 그는 책임에 대한 인식론적 방어나 프랭크푸트르적인 도식을 통한 방어를 공격한 다음, 마지막 장인 “Quality of will theories”에서 위에서 살펴본 아담스의 이론을 계승했다고 할 수 있는 ‘Quality of will’이론들을(이하 Qow) 공격한다.29)

그가 보기에는 도덕운의 논의에서 아담스적인 책임을 받아들이는 Qow 이론들은 적절적인 설득력을 가진다. 그가 보기에는 Qow이론들은 너무 강한 통제 원리는 거부하지만 행위자의 행동이 타인에 대한 어떤 태도를 발현한다는 점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여기는 이론들이다. 이 이론에서 도덕적 책임이나 비난의 대상은 한 사람의 ‘진정한 자아’(real self) 이기에, 행위자가 무의식적으로 행한 일도 그러한 자아에서부터 인과적으로 나타났다는 이유로 그 자아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Levi 2011: 183). 이를테면, 운전자가 통화를 하는 데에 정신이 팔려서 사고가


레비는 이러한 이론이 갖는 두 난점을 지적한다. 첫째 난점은 Qow이론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도덕운이 작용할 여지가 남는다는 것이며, 둘째 난점은 이러한 이론이 책임에 따른 비난(blame)에 대한 반적관적 그림을 전제한다는 것이다. 첫째 난점은 무의식중에 운이 개입되는 설명을 통해서 덮밥된다. 무의식중에 운이 개입된다면 무의식적 책임을 인정하는 Qow 입장 또한 운을 받아들일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레비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인종차별을 하는 사회의 구성원들에게는 의식적으로 인종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더라도 운에 따르기로 맡기게 되는 무의식적인 차별이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이 무의식적 차별을 교정하기 위해서 의식적 노력의 하더라도 그 과정에도 운에 따라 상공과 실패가 갱신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Levi 2011: 185-188). 이 경우에서 행위자의 무의식에도, 그것을 인지하고 수정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노력의 과정과 결과에서도 운은 얼마나든지 개입 가능하기에 Qow이론 역시 운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레비는 주장한다.

레비가 보기로 더 중요한 두 번째 난점은 Qow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유의지와 결정론에 대한 문제와 비난에 대한 문제를 분리하는 도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난점이다. Qow에 따르면 사람의 심적 상태, 혹은 믿음과 유사한(belieflke) 태도에 대한 우의가 곧 한 사람이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책임에 대한 판단과 같다. 그러나 이 둘을 동일시하는 설명은 사건에 대한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서 중폭되거나 약해지곤 하는 비난을 설명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30) 이처럼 변화하는 책임에 대한 변치 않는 보험은 버스에서 옆 사람의 발을 밟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변화하는 비난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만일 옆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우의를 가졌어 내 발을 밟았다면...
임 개념은 자유의지와 결정론에 관한 논의와 연결되는 인과적 책임 개념을 받아들이야 설명 가능하다. 그런데 한 사람의 심적 상태에 대한 비난은 고정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이처럼 인과적 책임이 아니다. 따라서 Qow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유의지와 결정론에 대한 이론과 비난에 대한 이론을 구분해야 한다는 추가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제 무어의 이론을 살펴보기로 하자. 무어는 그의 책 Placing blame에서 책임에 대한 결과주의적 관점을 지지하는 논변을 제시한다. 그는 첫째로 네이글이 논한 네 가지 운 중 일부의 운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는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 주장은 도덕운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결과운, 환경운, 인과운, 구성운으로부터 동시에 자유로워야 한다는 주장이고, 도덕운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큰 증명의 점을 쓸 수는 주장이다. 이를 보이기 위해서 무어는 하나의 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행위자 내적인 요소들의 어떤 지점에서 통제 불가능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려 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자 내적인 통제 불가능한 요소들과 행위자 외적인 통제 불가능한 요소들 사이에 어떤 본질적인 차이도 없으므로, 우리는 때 가지 운을 전부 거부하거나, 혹은 책임과 통제 원리 사이의 필연적 관계를 거부하고 책임에 대한 결과적인 설명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무어의 주장의 핵심은 한 사건에 개입하는 모든 통제 불가능한 요소를 분석해서 데 가지 운이 동질적임을 보이는 데에 있다. 그는 이를 보이기 위해서 하나의 사건과 그 사건에 개입하는 다양한 요소를 나열한다. 그가 분석하는 사례는 어떤 행위자가 삼촌을 쓰고 그의 유산을 가리려 하는 경우이다. 무어에 따르면, 이 사례는 (1) 성격을 구성하는 요소와 선택, (2) 성격, (3) 믿음/열망, (4) 지향(intention)(선택), (5) 의지(volitions)(시도), (6) 신체적 행동, (7) 실제로 일어나는 결과라는 일곱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Moore 1997: 235-236).

다는 사실을 깨달게 되면 내가 행할 도덕적 비난의 정도는 보다 커질 것이고, 반대로 악의 없이 우연에 의해서 내 발을 밟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도덕적 비난은 보다 작아 질 것이다. 레비는 이처럼 원인을 인지함으로서 변하게 되는 비난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각각의 구성 요소는 우리가 실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지점이 얼마나든지 개입될 수 있다. 그가 말하는 총을 쏘는 사례에서 나타날 수 있는 통제 불가능한 요소들은 (1)과(2)에 각각 유전과 잔혹한 환경, (3) 삼촌의 유언장, (4) 유산을 위해서 삼촌을 쏘겠다는 결정, (5) 방어에서 결정 수가락을 움직이겠다는 의지, (6) 수가락의 움직임, (7) 삼촌의 죽음이다(Moore 1997: 237). 상식적으로 볼 때 (1)~(7)을 네이글이 논한 네 가지 운으로 분류할 수는 있었지만, 이것들에 통제 불가능한 요소가 있다는 본질적인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즉 내가 유전이나, 나의 지향이나 의도 중 일부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나는 나의 뇌에 흐르는 신경 자극과, 뇌로부터 수가락에 미치는 신호 전달, 혹은 내 총 앞을 잡자기 가로막은 바람과 같은 요소들을 통제할 수 없다. 일곱 가지 요소들 모두가 같은 정도로 행위자의 영향 밖에 있다는 것이다. 결국 네이글의 네 가지 운 중 어느 하나의 운에서부터만 자유로운 행위자는 불가능하고, 따라서 도덕운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운을 동시에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도덕운에 대한 현대의 논의에는 여러 갈래가 있으며, 그리고 그에 따른 복잡한 논의들과 논점들이 있다는 것을 살펴 보았다. 이러한 논의들로부터 도덕적 책임에 대한 합당한 이론을 만드는 것이 필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곤마로 볼 수는 없겠다. 하지만 이 복잡한 논의는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책임의 필요 조건인 통제 원리를 지키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도덕운의 문제는 개별적인 사건들에 대한 직관, 운의 만연함이라는 주어진 사실, 그리고 자발성과 같은 심적 상태에 대한 형이상학적 문제가 복잡하게 엮혀 있기 때문이다.

도덕운이 규범성에 대해서 제기하는 여러운 현대의 정치철학적인 논의에서까지 연결될 수 있다. 이는 현대의 정치철학이 단순히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에서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성 일반의 문의의 연장선상에서 합당한 관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점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치철학과 규범성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이해하면, 도덕운의 문
제는 규범성에 대한 포괄적인 형이상학적 영역을 넘어서서 정치철학적 영역에까지 이어지게 된다. 다음 절에서는 정치철학적인 논의에서 변형되면서 제기되는 도덕윤의 문제를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롤즈의 입장에서 정치철학적으로 제기되는 우연성의 문제에서부터 운의 중립화를 지킬 방법을 고찰해 보겠다.

5. 운의 중립화에 대한 정치철학적 공격과 대응

이제부터 롤즈의 운의 중립화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인 정치철학적인 임의성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지금까지 논의에서는 롤즈가 운의 중립화를 강하게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윤리학적 공격은 간접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살펴봤다. 그러나 운에 대한 현대의 논의는 규범성 일반에 대한 방대한 형이상학적 문제를 제기하기에 규범성을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사회윤리, 혹은 정치철학의 영역에까지도 임의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확장된다. 분배적 정의의 이론 내부에도 임의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 공격은 정치철학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지기 에 롤즈는 이 공격을 정면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 절에서 나는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운의 중립화에 대한 롤즈의 최종적 대응을 살펴보겠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정치철학적 논의에서 발생하는 도덕윤의 문제를 다루었다. 여기에서는 윤리학의 영역에서 시작된 임의성의 문제가 '임의적 분배'에 대한 이름으로 정치철학의 영역에까지 확장된다는 점과 그 이유를 설명하겠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정치철학의 영역에서 이 임의적 분배의 문제가 가지는 난점과 롤즈에 대한 쉐플러의 해석이 이 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쉐플러의 해석이 맞닥뜨리게 될 노적의 추가 반론을 살펴보고 그에 대해서 롤즈의 입장에서 수행할 해명을 살펴볼 것으로서, 롤즈의 운의 중립화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이를 정당화하고자 한다.
5.1. 정치철학적 논의에서 발생하는 도덕운의 문제

5.1.1. 정치철학적 논의의 특징과 임의성과의 관계

운의 중립화에 대한 정치철학적 공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최근 정치철학적 논의가 갖는 두 특징과 그 귀결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 두 특징은 각각 정치철학의 주제가 사회적 규범성이라는 것, 그리고 이에 따라 추상적인 행위자를 다룬다는 것이다. 이 두 특성의 귀결에 따라서 정치철학적 논의로 확장되는 임의성과 그에 대한 대략적인 해결의 가능성 을 이해할 수 있다. 먼저, 현대의 정치철학적 논의는 윤리학과 완전히 동떨어진 학문이 아니다. 이는 정치철학과 윤리학이 별개의 학문이 아니라 각각 규범성에 대한 개인적 연구와 사회적 연구로 일한다든 것이다. 그래서 정치철학적 논의 역시 윤리학과 관련을 맺게 된다.


정치철학이 갖는 규범적 성격으로 인해 도덕운의 문제가 정치철학적 문제로 확장된다. 앞에서 살펴본 도덕운의 문제는 윤리학의 영역에서 규범성을 설명할 때에 어느 정도의 임의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그런데 규범성을 설명할 때에 임의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규범성을 사회적으로 바라볼 때에도 임의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정치철학의 영역에도 도덕운의 문제가 그 주제의 궁극적 동일성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연장된다.

그런데 정치철학은 사회적 규범성을 다루기 때문에 윤리학에서처럼 현실의 개별적인 인간의 관점은 다를 필요가 없고, 이 때문에 운의 문제는 다소 완화될 수 있다. 윤리학은 주로 개별적인 인간을 다룬다. 앞에서 살
파문 윤리적 책임과 관련되어 문제가 된 운의 문제는 주로 행동, 혹은 심적 상태와 같이 개인에 관련된 문제이다. 이 때 일어나는 사고 실험도 주로 개별적인 경우를 상정한다. 위에서 언급한 부주의한 버스 운전자의 경우에서도 사람을 친 어떤 한 개인을 상정될 뿐, 부주의한 교통사고를 쉽게 발생하는 구조를 다루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치철학적인 논의는 윤리학과는 달리 추상적인 인간의 관점에서 진행될 수 있다. 특히 정치철학에서 중요한 전통인 사회계약론적 전통을 예로 들지만, 현대의 두 계약론적 전통 모두 나름의 특정한 추상적 인간관을 통해 논의되는 점이 명확해질 것이다.31) 커러키는 사회계약론의 역사적 전통을 홀스적인 전통과 칸트적인 전통으로 나눈다. 홀스적인 전통에서의 당사자들은 도덕적인 평등 상황에 놓여 있는 존재들로 가정되는 반면, 칸트적 전통에서의 당사자들은 도덕적으로 평등한 존재로 가정된다. 그래서 그에 따르면 어떤 인간관계가 보다 합당하고 적절한 인간관계를 둔을 수 있을 뿐, 각 이론의 결론을 곧바로 그 이론들의 결합이 되지는 않는다(Kymlicka 1993: 195-196). 어쨌든 정치철학적 이론들이 현실의 인간을 추상해 낸 특수한 인간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처럼 추상적인 행위자의 책임을 논할 때에는, 만일 그것이 합당하다고 말할 적절한 이유가 있다면 워커가 말한 ‘순수한 행위자’를 가정할 수도 있다.

이 ‘순수한 행위자’를 합당하게 가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정치철학적으로 제기되는 운의 문제의 핵심이다. 순수한 행위자란 단 그의 자율적인 의도에 따르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존재라고 가정해 보자.32) 이 행위자는 네이지가 제시한 네 가지 운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다. 자신의 의도대로 행위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가정되는 존재에게는 그의 행위가

---

31) 정치철학적인 논의를 위해서 특수한 인간관계를 가정하는 것은 공리주의나 마르크스주의 혹은 노동자지상주의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홀스와 가장 가까운 계약론적 전통의 인간관을 예로 들고자 한다.

32) 이러한 의미의 순수한 행위자는 도덕론의 논의에서 등장한 순수한 존재와는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모든 행위의 결과가 자신의 의도대로 나타나는 순수한 행위자는 사실상 신과 유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행위자인 반면, 도덕론의 논의에서 위치가 주장한 순수한 존재는 자신의 의도에 따라서 나타난 결과에만 책임을 지는 행위자이다.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결과운), 혹은 그 당사자가 다른 환경에 놓였을 때 어떤 다른 행위를 하게 될지(환경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 당사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른 바로 그 결과를 가지게 될 당사자로 가정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당사자가 어떤 상황에 놓였고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구성운, 인과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치철학적인 추상적 행위자를 논할 때는 모든 현재의 상황들에 놓였는지, 그가 어떤 상태에 놓일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의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문제를 모두 가정을 통해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행위자를 가정하여 진행되는 추론이 정치철학적 합당성을 얻을 수 있는지는 문제로 남는다. 아무리 정치철학적 논의가 규범성에 대한 기시적인 접근을 인정하더라도 그 접근은 어느 정도 현실의 분배적 정의에 대한 주장을 피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접근이다. 그러므로 현실의 정의나 현실적인 조건과 완전히 밀어져 있는 정치철학의 결론은 그 건전성을 지적할 여지가 남는다. 따라서 정치철학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운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당사자를 아무런 근거 없이 가정하기는 어렵다.

5.1.2. 임의적 분배문제로 변형되는 도덕운의 문제

그래서 정치철학적 맥락에서도 도덕운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다만 '임의적 분배'에 대한 문제로 변형된다. 앞에서 보기에, 위에 서술한 차이로 인해서 정치철학적 논의에서는 도덕운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 운의 변연합을 피할 수 있는 순수한 행위자는, 그가 합당하게 가정될 수만 있다면 강한 의미의 통제 원리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정치철학적 추상성이 이러한 행위자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다. 그러나 이처럼 추상적인 논의에 기대더라도 운에 좌우되지 않는 추상적인 행위자가 합당하게 가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남는다. 반대로, 만일 정치철학에서 운이 개입될 여지가 있도록 행위자나 환경을 구성한
다만 그 결과물에서도 우연의 여지가 남게 된다.

그래서 롤즈의 표현을 따르면 이 문제는 분배적 정의에서 ‘임의적인 분배’를 인정하느냐 혹은 인정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로 변형된다. 대부분의 정의권은 그 추론 과정에서 가정되는 추상적인 행위자의 성향이나 환경의 특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분배적 정의권을 논할 때 임의적 요소가 개입되도록 그 배경이 설정된다면 그 결과인 정의의 원칙 또한 임의적인 분배를 인정할 것이다. 반대로 롤즈와 같이 정의권의 배경이 틀이 개입될 여지가 없도록 찍어진다면 그 결과 또한 임의적 요소를 배제하게 된다.

그런데 대다수의 정의론은 운의 만연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임의적 분배를 암묵적으로 다룬다. 운의 만연함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의권에서는 그 논의를 위한 추상적 당사자들을 결정하는 데에 운이 개입된다고 한다. 이렇게 나타나는 정의권에서는 임의적 분배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의의 배경에서 우연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한 롤즈와는 달리, 많은 분배적 정의 이론은 이에 대한 논의를 명시적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론들은 운에 대한 깊은 고려 없이 임의적 분배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임의적 분배를 명시적으로 받아들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노직의 입장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우선 정의권 안에 우연적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게다가 그는 이러한 요소가 들어가지 않는 정의권은 허당할 수 없다고 롤즈를 공격한다. 특히, 노직은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롤즈와 마찬가지로 칸트적인 인격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이러한 특정들에 비추어 볼 때, 정치철학적 맥락에서 이어지는 임의적 분배의 문제는 롤즈와 노직 간의 대결을 통해서 논의되는 것이 가장 냈다. 이제 다음 절에서는 노직의 이론과 그의 공격을 살펴본 다음, 롤즈를 노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히 해석한 셰플러의 입장은 살펴보기로 하겠다.

5.2. 노직과 롤즈가 바라보는 임의적 분배의 문제에 대
한 검토

이제 임의적 분배의 문제를 정치철학에서 어떻게 다루는 것이 가장 합당할지를 보기 위해서 노직이 설정하는 이론적 배경과 그로부터 임의적 분배를 도출하는 과정을 살펴보겠다. 여기에서 노직의 관점이 롤즈에게 제기하는 비판은 롤즈를 상식적으로 이해할 때 빠져나가기 쉽지 않은 비판이며, 이 논문의 처음부터 제기했던 문제인 운의 중립화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다.

여기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임의적 분배 문제를 다룰 것이 다. 우선 다룰 내용은 노직의 역사적 정의 이론이다. 여기에서는 임의적 분배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과, 그 주장을 근거로 제기되는 칸트적인 자율적 인간상, 그리고 이 근거의 맥점을 짐아 볼 것이다.

다음으로는 노직이 제기하는 롤즈의 난점과 그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롤즈를 해석한 쉐플러의 논의를 살펴보겠다. 노직의 비판은 유국결 과적으로 해석된 롤즈의 이론에 대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해석은 한편으로는 롤즈에 대한 직관적 해석을 반영하지만, 임의적 분배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비판에 쉽게 노출된다는 점을 먼저 설명하겠다. 하지만 이 난점 외에도 롤즈를 이렇게 해석하면 그의 전체 논의를 완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그래서 이 두 논의에 따르면 롤즈의 이론도, 노직의 이론도 운의 문제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게 되는 달래마에 직면한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달래마에서 벗어나서 합당하게 운의 문제를 대처하는 이론은 쉐플러의 방식으로 해석한 롤즈의 이론이라고 논하고자 한다. 또한 이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자칫하면 지나치기 쉬운 '사회의 기본 구조' 와 같은 롤즈의 몇몇 장치들이 자율적이고 도덕적인 합당한 인간관을 묘사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로 작용한다는 것이 나타날 것이다.

5.2.1. 노직의 역사적 정의이론과 임의적 분배
먼저 노직의 이론을 보기 전에 그가 제시하는 정의론의 분류를 살펴보면 그의 이론과 롤즈의 이론 간의 차이를 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노직은 정의의 이론을 역사적인 이론과 종국결과적 이론으로 나눈다. 그는 자신의 소유권리론이 합당한 역사적 이론과 반면, 공리주의와 같은 이론 들은 부당한 종국결과적(end-result, 혹은 종국상태적(end-state)) 이론이라고 주장한다.


종국결과 이론에 대한 더 자세한 탐구와 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우선 노직이 제시하는 근거를 주의 깊게 살펴보기로 한다. 노직은 응분(desert)에 대한 칸트적 개념을 통해서 임의적 분배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칸트의 이론을 특수한 형태로 개진시킨 결과이다. 이렇게 해석된 칸트적 근거에 대한 진술은 최


이처럼 칸트적 직관을 소유권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는 노직의 논의에 대해서는 많은 반작권적인 측면이 있고, 그에 따른 다양한 반론이 제기되었지만, 여기에서의 그의 주장이 임의적 분배를 부당한 근거에 기반하여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에만 집중하였다. 노직의 이론은 우리가 살펴볼 만한 풍부한 논의들과 정치철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뒤에 살펴볼 콜즈에 대한 그의 해석과 그 반론은 우리에게 콜즈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지를 고민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이론 역시 온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는 행위자들이 갖게 되는 재능이나 여건은 불가침의 토리라고 여긴다. 즉 노직에 따르면, 콜즈가 임의적이든 것이라고 말한 우연적 여건과 같은 것들을 정의권의 배경의 한 요소로서 받아들이어야 한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노직은 소외 칸트적인 자율적 행위자와 제시하지만, 이 행위자는 필연적으로 운의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칸트적이지 않다(Nozick 1974: 32). 노직은 역사적 정의관만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역사적 정의관을 세우려고 한다면 재능이나 여건과 같은 우연적 요소들이 없는 자율적인 인간성을 그러나갈 수가 없다. 이러한 태도는 현실적으로 우연적 요소에 지배받으면서도 나름의 책임을 그러나가려는 워커의 행위자와 유사한 행위자를 가정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어느 정도의
설득력은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키도 방향도 임의적 요소가 포함된 행위자는 그 정의상 ‘순수한 행위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노직의 이론에서 온에서부터 자유로운 ‘순수한 행위자’를 찾을 수 없게 된다.


5.2.2. 종국결과(end-result)적으로 해석된 롤즈 이론의 난점

이제 롤즈에 대한 노직의 강력한 공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공격은 롤즈의 입장의 종국결과적으로 해석하면서 시작한다. 분배적 정의이론에 대한 노직의 분류로 돌아가 보면 분배적 정의 이론들은 종국결과적 이론들과 역사적 이론들로 나뉜다. 특히 종국결과적 이론이라는 이름 하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론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33)

33) 1)Crude egalitarianism, 2)Crude sufficientarianism, 3)Prioritarianism, 4)(종국결
그리고 이 관점은 분배기획에 대한 상식적 직관, 즉 권리를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재분배가 이루어나야 한다는 직관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나름의 정당성을 가지는 해석이다. 노직은 이러한 이론이 칸트적 자율성을 갖지 못하는 이론이라고 비판한다. 이 비판은 롤즈에 대한 종국결과적 해석34)을 살펴보는 과정과 그 이론의 부정합성을 지적하는 과정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롤즈에 대한 노직의 종국결과적 해석을 살펴보자. 그는 원초적 입장에서 보어서 그의 해석이 어떤지를 설명한다. 첫 번째 정신적 롤즈가 가정하는 상황을 만나(manna)처럼 떠어지는 부를 분배하는 경우라고 보며, 다른 정신적은 자신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어떤 형태의 시험 점수의 분배를 받아들일지에 대한 경우로 본다(Nozick, 1974: 198-200). 이러한 묘사는 노직이 도덕적인 의미의 합당성은 없지만 도구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자들이 유효적으로 신출되는 결과를 나누는 과정에 대한 합의 과정을 표현하는 도구로 원초적 입장을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노직이 보기에는, 이와 같은 배경에서 나타나는 이론은 종국결과적 윤바닥에 없다. 원초적 입장에서는 소유 권리가 전혀 고려되지 않기에 가기에서 어떤 원칙이 수립되든지 간에 당사자들은 각자에게 주어지는 결과물에 대한 역사적인 고려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이 원초적 입장에서는 역사적 원리를 설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능이나 여건도 고려되지 않는다. 이처럼 원초적 입상에서 소유물에 대한 역사적 접근은 불가능하기에 노직에 따르면 롤즈의 이론은 필연적으로 종국결과적 성격을 갖게 된다.

이후의 논의를 위해서 롤즈에 대한 종국결과적 해석이 온-평등주의적

---

34) 롤즈를 종국결과적으로 해석할 때에 일반적으로 그의 이론은 최초의 온-평등주의적 성격을 지니는 이론으로 분류된다. 온-평등주의적 이론은 흔히 롤즈의 직관을 이어받아서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되며, 완전 정리하면 온은 결과적으로 종합화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후의 논의에서 롤즈에 대한 쉐플러의 입장이 여러 면에서 보다 합당한 것으로 평가될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우선 종국결과적인 온-평등주의로 해석된 롤즈의 주장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서울대학교
이론이라는 사실을 잡아 잡고 넘어가자. 만일 롤즈가 종국결과적으로 해석된다면, 그 이론은 운-평등주의적 성격을 갖는다.35) 네운 의미에서, 운-평등주의 이론이란 평등주의 이론을 우연성에 적용시킨 이론이다. 평등주의 이론이란 '제회 x를 평등히 분배하는 경우를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선호하는 이론'이기에.(Hurley 2003: 147) 이를 우연성에 대해 적용한 운-평등주의 이론은, 특정한 경우의 운에 의한 불평등한 분배를 제외하면, 평등한 분배를 그렇지 않은 분배보다 선호하는 이론을 의미하게 된다.36) 또한 만일 종국결과적으로 롤즈를 해석한다면, 자동의 원칙은 사회적 기본 가치가 결과적으로 자동의 원칙에 따라 분배되어 한다는 원칙이다. 여기에 자동의 원칙은 운의 중립화에 의해서 도출된 원칙이기 때문 에, 이 원칙은 자동의 분배에 운의 중립화를 적용시킨 원칙이 되고, 결국 롤즈에 대한 종국결과적 해석은 그의 이론을 운-평등주의 이론 중 하나로 만든다.

이렇게 종국결과적으로 해석된 롤즈의 이론이 대한 노직의 공격은 칸트적 행위자를 근거로 가진다. 노직의 논의에 따르면 종국결과적 이론들은 그 정의상 자율적이고 전부적인 권리에 대한 직권을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종국결과적 이론은 칸트적 인격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직권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다른 모든 조건이 공정하다면, 한 행위자가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생산해낸 어떤 결과물은 그 행위자에게 속해야 한다. 그런데 종국결과적 이론은 이러한 결과물에 대한 간섭을 그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정당한 결과물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재분배든지 행위

35)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여기에서 코헨과 같은 롤즈 이후의 운-평등주의자들은 따로 논의하지 않는 것을 것이다. 우선 바로 아래에 논의되듯, 종국결과적으로 해석된 롤즈에 대한 비판은 매우 운-평등주의적이기에, 이들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 이유가 보다 중요하다. 노직에게서는 롤즈의 이론이 마치 종국결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처럼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 운-평등주의자들이 받아들이는 롤즈는 그렇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후의 논의가 롤즈를 다르게 해석한 노직의 논의에 이어진다는 점에서, 여기에서는 노직의 논의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다만 제시한 첫 번째 이유로 인해 롤즈에 대한 운-평등주의적 해석은 종국결과적 해석과 거의 유사한 의미로 사용될 것이다.

36) 특정한 경우만 도박과 같은 순전한(bare) 확률의 문제와 관련된 운 혹은 근거 있는 운을 가리킨다. 합의되고 공정한 둘에 따른 도박을 통한 분배가 그 결과에 상관없이 부정의하지 않다는 것은 롤즈 역시 인정하는 것이다(Rawls 1971: 85-90).
자의 정당한 결과물에 대한 침해이기에 이는 행위자의 자율성과 상충한다. 따라서 중국결과적 이론은 이상적인 정의관이 될 수 없으며, 중국결과적 이론 중 하나인 롤즈의 이론 역시 이상적인 정의관이 될 수 없다.

이와 같은 논직의 반론에 덧붙여 중국결과적으로 해석된 차동의 원칙은 임의적 분배를 완전히 납득 가능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다. 이는 중국결과적으로 해석된 차동의 원칙이 가지는 운-평등주의적 성격이 임의적 분배에 있어서 달래마에 빠지기 때문이다. 중국결과적 이론은 어떤 결과물을 합당하게 나누는 원칙을 정의로 본다. 이 결과물이 산출되는 과정은 운의 적응을 받거나 받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 결과물이 산출되는 과정이 운의 적응을 받는다고 하면, 롤즈의 이론 역시 임의적 분배를 인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롤즈가 주장하는 운의 중립화와 충돌한다.

다른 한편 사회의 결과물이 운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는 정치철학적으로 합당하게 가정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논해 온 운의 면연합은 현실의 모든 결과물에는 운이 작용한다는 직관적으로 자명한 명제를 함축한다. 그런데 중국결과적으로 해석된 차동의 원칙은 임의적 분배를 거부하려면 운이 개입되지 않는 결과물을 가정해야 하고, 이는 다시 운의 면연합과 어긋난다. 이렇게 임의적 분배의 문제는 중국결과적 이론 혹은 결과적인 운-평등주의적 이론에서도 사회의 결과물의 산출에 있어서 달래마를 만들어낸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분배적 정의에 대한 논직의 역사적 입장도, 이에 반대되는 입장인 중국결과적으로 해석된 롤즈의 입장도 정치철학적으로 제기된 ‘임의적 분배’의 문제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은 근거밖에 주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는 롤즈를 이 두 가지 입장과 달리 해석하는 쉐플러의 해석을 살펴볼 것이나 이에 앞서 장시 롤즈에 대한 중국결과적 해석이 갖는 두 가지 해석상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서 논직의 롤즈 해석이 가지는 추가적인 문제점을 잡고 넘어가고자 한다. 먼저 중국결과적 해석에서는 롤즈가 중요하게 사용하는 ‘사회의 기본 구조’라는 표현의 의미를 주기 어렵다. 중국결과적 해석에 따르면 정의의 주제,
즉 그 대상은 사회적 산출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롤즈는 정의의 주제가 ‘사회의 기본 구조’라고 정의론의 앞부분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절한 해석은 이 개념의 의미는 보다 구체적으로 해명할 수 있어야 한다.

개다가 중국결과적 해석에서는 롤즈가 자신의 정의관의 특징이라고 밝히는 ‘절차적(procedural)’ 입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는 문제도 있다. 중국결과적 해석은 유동적으로 그 총량이 결정되는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를 다루는 결과적 배분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롤즈는 자신의 입장이 분명히 정의에 대한 절차적 입장이라는 것을 여러 곳에서 강조한다. 그런데 중국결과적으로 해석된 자동의 원칙은 롤즈의 절차적 입장이 다른 운명주의와 다른 점을 설명할 수가 없다. 자동의 원칙을 중국결과적으로 해석하면 절차적 정의관이란 과적 사회적 생산물의 분배 할 원칙을 특수한 가정을 통해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될 텐데, 이러한 정의관은 롤즈가 자신의 반대 입장으로 두는 결과주의적 정의관의 다른 형태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부터는 롤즈를 보다 추상적으로 해석하면서 웅호하는 쉐플러의 해석이 임의적 분배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줄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5.2.3. 쉐플러가 해석한 추상적인 롤즈와 임의적 분배의 문제

쉐플러가 해석하는 롤즈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이론이 정의관에 대한 노직의 분류 기준에 잡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에서 노직은 분배적 정의이론을 역사적 이론과 중국결과적 이론으로 구분하였다. 그는 마치 모든 분배적 정의이론이 이 기준에 의해서 두 이론 중 하나로 정의될 것처럼 논의한다. 그러나 쉐플러가 제시하는 롤즈는 사회적으로 산출되는 결과물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분배적 정의에 대한 노직의 구분을 벗어나게 되며, 이 특징이 절차적 정의관이 어떤 것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보여 준다. 롤즈에 대한 쉐플러의 해석은 앞에서 해석상의 문제를 일으켰던
‘사회적 기본 구조’와 ‘별자적 정의권’이라는 두 표현에 대한 엄밀한 검토를 통해서 정리된다. 이제 우선 이 두 표현을 통한 쉐플러의 해석을 살펴본 다음 그처럼 해석된 롤즈의 이론에서 임의적 분배의 문제가 어떻게 될지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다.


게다가 주제적 기준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면 이에 대해 고려하는 사람들은 개별적인 개인이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결과적 소유물에 대한 상식적인 직관을 잃지 않아야 한다. 이런 소유물은 하나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분배 방식에 따른 결과인데, 사회 구조가 보다 근본적으로 이 분배 방식을 근본적으로 정하는 원칙을 정하기 때문이다.

쉐플러는 개인과 사회를 구분하면서 시작하는 정치철학의 근본적 특징 때문에 정의론은 사회의 기본 구조를 논해야 한다고 해명한다. 앞에서 논했듯 현대의 정치철학은 규범성에 대한 거시적 접근을 그 과자로 한
현실에서의 모든 개인은 암묵적으로 사회적 영향 아래에 있을 수 밖
에 없으며, 이러한 영향은 각 개인에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
다. 쉐플러는 이 사고의 연장선상에서 사회적 기본 구조에 대한 고찰을
통해 개인에게 미치는 사회적 측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라
서 쉐플러가 보기에에는 정의론은 단순히 개인에게 돌아가는 소유물을 고
려하지 말고, 그 구조적 원인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본 구조에 집중해야
한다.

쉐플러는 이와 같은 해석의 근거로서 사회적 구조와 그 영향력에 대한
롤즈의 세 가지 논의를 강조한다. 이는 각각 첫째, 사회적 기본 구조는
“그 영향력이 심대하고 또 그것이 근본적인 데서부터 나타난다”는 것,
둘째, “사회 체제는 시민들이 갖게 될 육구와 열망의 형태를 형성해준
다”는 것이 마지막으로 “개인간의 거래나 계약의 공정성(fair)에 대한 논의
는 그 배경적인 조건들을 포함시키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Scheffler 2006: 134-135). 이 세 가지 주장은 개인이 갖는 가치관이나
소유물 일체와 같은 것들에 미치는 사회의 중대한 영향을 롤즈가 고려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올바른 정의론은 개별적인 행위자들에 대
한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개별적 소유물에 대한 논
의와는 다른 거시적 차원의 논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서 적절한 정의관에 대한 논의는 한편으로 ‘현실의 개인들이 가지
는 의무나 책임과도 관련이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현실
에서 원초적 입장과 같은 방식의 판단을 적용시키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
도 아니다(Scheffler 2006: 135). 현실의 행위자들은 자신의 행동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원초적 입장에서의 관점에서 행해진 관점을 적용시키는
수도, 그럴 필요도 없다. 정의론의 대상은 거시적 규범성이기 때문이다.
정의론은 말하자면 규범성의 사회적 측면을 다루게 되며, 이를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 ‘사회의 기본 구조’가 된다.

게다가 쉐플러에 의해서 해석된 롤즈의 이론은 정의관의 ‘절차적’ 특징
을 보다 직접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Rawls 1971: 201). 여기에서
밝혀지는 절차적 정의관의 특징은 결과적 소유물을 정의론에서 간접적인
위치에 두는 것이며, 이는 정의론에 대한 노직의 청사진과 젠차적 정의 관을 대비시킴으로써 잘 이해한다. 노직은 정의를 논할 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타난 소유물을 가정한다. 여기에서는 어떤 사회의 사람들이 각자의 자신의 능력, 혹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결과물은 나누어 가지는 상황을 고려한다. 그리고 이 결과물의 역사적 과정을 고려하는가 여부에 따라서 정의론에 대한 두 구분이 지어진다.

이와 달리 롤즈의 이론은 이러한 결과적 소유물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젠차적 성격을 띈다. 롤즈의 거시적 정의에 대한 논의는 노직의 논의보다 더 추상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노직이 어떤 개인적 소유 결과물의 존재를 가정하는 것과는 달리, 쉐플러의 롤즈는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원인만을 다루게 된다. 이 사회적 원인에 대한 논의에서는 ‘합당성’이 중요하게 고려되는데, 이 합당성은 칸트적 인격 개념에 따라서 가정되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최대한 추상적인 상황에서 어떤 원칙에 자발적으로 합의할지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정의의 원칙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동의 자체이지, 그 동의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분배받게 되는지가 아니다. 이렇게 정의의 원칙에서 사회적 산출물을 추상화시킬 때에 비로소 우리는 젠차적 정의관을 이해하게 된다.

이처럼 결과를 추상화하고서 추론된 원칙에서는 도덕운의 문제도, 임의적 분배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우선 결과를 추상화하기 위해서 가정된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완전히 조절할 수 있는 ‘순수한 행위자’의 성격을 갖기에 도덕운의 문제에서 벗어난다. 이 행위자들은 어떤 사건과도 일반적인 법칙을 제외하고서는 개별적인 인과적 사건들과 아무런 직접적 관련이 없으며, 각자는 자율적이고 이성적인 인간성을 표현한다. 이들은 합당한 숙고 과정을 통해서 전적으로 분배 법칙에 합의하는데, 이 법칙을 세우는 과정 자체는 완전히 구성원들의 이성적 통제 범위 안에 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의 결과가 나타나는 ‘순수한 행위자’이기에 도덕운의 분배함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임의적 분배의 문제를 일으킨 현실적이고 역사적인 결과가 여기
에서는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나타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쉘플러처럼 해석된 롤즈가 임의적 분배에 관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설명은 완전하지 못하다. 이를 받아들이더라도 이와 같이 과도하게 추상적인 입장이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정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질문이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롤즈의 입장이 노데체 어디에 무슨 쓰모가 있는지가는 질문이고, 그래서 정의관의 합당성에 대한 심도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비판으로 해석될 수 있는 노직의 추가적인 논의를 소개하고, 이에 대해 쉘플러처럼 해석된 롤즈가 할 만한 답변을 찾아 보도록 하겠다.

5.3. 노직의 추가 비판과 롤즈의 대응

노직은 롤즈의 입장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하는데, 이 중에는 롤즈에 대한 운-평등주의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판이 있다. 또한 이러한 비판은 롤즈의 입장에서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을 정확하게 보고 있지 않은 운-평등주의적 해석에 기반한 비판과는 달리 롤즈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양립 가능하기에, 보다 롤즈의 핵심에 근접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 비판에 대해서 롤즈의 추상적인 정의관이 정치철학적 규범의 핵심인 ‘평등’의 다의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대응 방법을 검토할 것이다. 이 대응은 롤즈가 제시하는 평등의 근거를 분석하면서 진행된다.

5.3.1. 미시적 정의와 거시적 정의 간 구분에 따른 문제

지금부터 소개할 비판에서 노직은 롤즈에게서 정의의 대상이 개별적인 결과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여기에서 노직은 롤즈의 이론이 ‘미시적 문맥과 거시적 문맥’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한다(Nozick 1974: 205). 그래서 거시적 문맥에서 정해진 롤즈의 정의의 원칙은 미시적인 현실 사례에 곧바로 적용되지도 않고, 미시적 반례 때
문에 혼들리지도 않게 된다. 따라서 이제부터 전개되는 그의 논의의 앞에서 동장한 종국결과적 롤즈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기에, 쉐플리에 의해서 해석된 롤즈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

그런데 노직은 이처럼 추상적인 정의관은 합당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가 보기에는 추상적인 정의관으로 인해서 현실적인 미시적 참과 원칙적인 기시적 참과의 사이가 너무 벌어지게 되어서 기시적 원칙이 개별적인 사건들에 적합적으로 적용될 수 없게 된다면 그 입장은 합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37) 노직은 일상적으로 경험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종종 노직게 되는 직관적 부정의와 독립적으로 쉐플리식 롤즈 이론의 해석이 보장될 것이라고 정리한 뒤, 이런 이론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근거로 그는 정의관이 옳다면 그 정의관은 미시적인 관점에서도, 기시적인 관점에서도 옳아야 한다는 플라톤적 전통을 내세운다. 그에 따르면 국가에 제시된 플라톤의 전통에서부터 참된 진리는 개별적인 경우나 기시적인 경우 양 측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직관이 나타난다.

국가의 전제 논의는 미시적인 규범성에서 시작한 질문을 국가 일반에 대한 기시적 관점에서 살펴볼 때에 보다 잘 이해하게 된다는 전제를 통해서 진행되며 이 전제는 합당한 정의관의 상식적 필요조건을 반영한다. 그러나 어떤 이론이 기시적으로는 맞고 미시적으로는 영향력이 없다면 이 뿌리 깊은 직관을 거부해야 한다. 노직은 그러한 이론이 어떻게 합당할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하는 것이다(Nozick 1974: 205).


37) 여기에서 나타나는 노직의 논의는 노직의 논의 중 일부에 집중하여 정리되었다. 같은 부분에서 나타나는 노직의 논의 중 후반부의 논의는 롤즈에 대한 종국결과적 해석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Nozick 208-213).
당하다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리하자면 이는 한 정의관이 일상적이고 개별적으로 느끼게 되는 소유권리에 대한 정의값이 또는 플라톤적 직관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 정의관이 어떻게 반성적 평행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다.

결국 노직의 주장은 미시적 문맥과 거시적 문맥을 벌리 떨어뜨린 정의관은 그 역할을 다할 수 없기에 부당하게 된다는 주장이며 쉐플러처럼 해석된 롤즈는 이 비판을 피하기 쉽지 않다. 쉐플러의 롤즈는 한편으로 ‘현실의 개인들이 가지는 의무나 책임과도 관련이 없고,’ 다른 한편으로 현실에서 원초적 입장과 같은 방식의 판단을 적용시키는 방법을 제시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노직에 따르면 이런 이론은 현실적인 분배의 문제를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다고 생각되는 여타 분배적 정의이론들과는 달리 그 이론을 통해서 현실에서 당사자가 현실정치에 적용 가능한 기준을 마련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이론을 필요로 하는지를 질문하게 된다.

이제부터 살펴볼 내용은 정의론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가장 직접한 응답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소개이다. 물론 미시적 문맥과 거시적 문맥을 나눌 수 없다는 노직의 공격에 롤즈가 다른 방식으로 응수할 수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면 사회와 개인간의 본질적 차이에 주목하여 사회 윤리적 개인적 윤리에 비해서 다소 추상적인 사고 과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단순한 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소개할 롤즈의 대답은 정치철학적 규범성의 본질인 평등과 연결되는 대답이며 이는 곧 정의론의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다.

5.3.2. 정의관과 인격의 통일성

롤즈가 정의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밝히는 정의관의 의의는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평등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해명이다. 이 논의는 정의론의 앞부분에 잡아 제시되는 ‘좋음(good)’에 대한 ‘옳음(right)’의 우선성과 연결되는 논의이다. 그는 직접하게 세워진 정의관에서 자연스
럽게 드러나는 울음의 우 선성이 평등의 의미를 보다 명료하게 만들어준 다고 본다. 이제 문제가 되는 평등의 의미를 살펴보자. 롤즈는 그 의미를 바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두 논변을 살펴보도록 하겠다.39)

롤즈는 정치철학에서 중요한 개념인 ‘평등’이라는 표현이 갖는 상이한 두 가지 의미를 먼저 문제 삼는다. 앞에서 보았듯, 정치철학은 평등이라는 근거를 통해서 규범성에 대한 거시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나 평등이라는 말의 직관적인 의미는 두 가지이다. 평등은 때로 공정한 기회의 균등을 의미하고, 또 때로는 특정한 대상이 갖는 보편적인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두 의미는 경우에 따라 상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의미가 우선하는지가 명확해져야 한다.


롤즈는 평등의 두 가지 상이한 의미 중 어떤 의미가 우선할지를 평등

38) 여기에서 ‘좋음’과 ‘울음’은 각각 윤리학의 커다란 두 가지 흐름인 ‘결과주의’와 ‘의무론’에 상응한다. 롤즈의 정의론은 기본적으로 칸트적 의무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위의 설명과 같은 울음의 우선성에 대한 그의 강조는 정의라는 거시적 규범성의 핵심이 의무론이라는 주장이라고도 볼 수 있다.

39) 이하의 논의는 주로 정의론 후반부의 주요 논의를 따르는 것이다(Rawls 1971: 504-577). 롤즈는 후반부에서의 논의가 정의론 전체가 핵심을 되도록 만들어주는데, 여기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이 절의 논의는 다시금 주요하게 살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적용되는 세 번째 수준의 근거 도덕적 인격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결정하려고 노력한다. 이는 평등의 세 수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수준의 근거가 도덕적 인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평등은 현실적인 특성에 의해서 지지되는 개념이 아니라 규범적 개념이다. 그래서 어떤 대상은 평등한 대상으로 고려하기 위한 충분 조건은 그 대상이 이러한 규범적 인장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할 것, 즉 도덕적 인격을 갖추는 것이 된다(Rawls 1971: 505).

도덕적 인격으로부터 평등의 의미를 해명하려는 시도는 두 가지로 전개된다. 첫째 시도는 인격의 도덕적 성질에 의거하여 진행된다. 이 논변은 평등의 가장 심원한 부분이 도덕적 자세를 취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 는 점에 주목한다. 롤즈가 보기에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상황, 즉 우리가 규범성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가정될 만한 범위에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도덕적 자세를 취할 수 있다.40) 그런데 만일 평등이 이 능력에 의해서 지지된다면 차동의 조건이라 할 수 있는 평등의 첫 번째 의미는 평등의 근거와 간접적으로만 연결된다. 따라서 평등의 근거를 도덕적 인격이라고 본 때 평등의 본질적 의미는 평등의 두 번째 의미인 권리의 평등이 된다.

롤즈의 입장에서부터 끌어낼 수 있는 두 번째 논변은 인격의 통일성에 대한 고찰에서 나타나는 옹음의 우선성에 근거한다. 이 논변은 평등의 근거인 도덕적 인격을 보다 세밀하게 고찰하여 얻게 되는 논변이다. 롤즈는 먼저 도덕적 인격의 두 가지 능력을 지적한다. 이는 각각 결과주의와 의무론에 대응하는 ‘선(좋음)에 대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것’과 ‘정의감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다. 만일 이 두 능력 중에서 ‘정의감을 가질 수 있는 능력’, 즉 옹음의 혼상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보다 근원적이라고 밝혀진다면 권리에 대한 평등이(1원칙) 차동의 근기(2원칙/차동의 원칙)보다 우선한다는 선행 논의에 의해서 다시금 평등의 두 번째 의미가 보다 본질적이게 된다.

홍미롭게도 종음에 대한 옹음의 우선성에 대한 롤즈의 논의는 3절에서

40) 롤즈는 이처럼 규범적 논의를 수행할 때 요구하는 일반성에 대한 강조를 통해서 정신지체자나 장애인과 같은 개별적인 경우의 예외적 상황을 논의에서 제외한다.
윌리엄스가 롤즈를 비판하면서 수행했던 바로 그 방식으로 진행된다. 롤즈는 먼저 목적론적 사고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상의 종음이라 할 수 있는 ‘지배적 목적’이 가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가 보기에, 목적론적 사고에서는 하나의 목적이 정해지지 않고서는 어떤 행위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배적 목적이 여러 가지 논의가 끝이지 않는 피행 혹은 ‘쾌락(pleasure)’과 같은 개념이라고 여겨진다.

롤즈는 앞에서 윌리엄스가 펼쳤던 논변을 그대로 목적이 적용해서 지배적 목적이 부당성을 논하는 데, 이를 위해 그는 먼저 정의관에서 목적론이 필요로 하는 ‘지배적 목적’에 대해서 더 자세히 논의한다. 지배적 목적이란 다른 모든 행위의 목적을 그 목적을 위한 것으로 향하게 하는 목적이다. 롤즈는 목적론이 행위자가 그때그때 행할 행위를 정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개념을 필요로 한다고 여긴다. 이러한 목적이 없다면 행위자가 가지게 될 수많은 목적 간의 충돌로 인해서 어떤 행위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적론은 지배적 목적론을 근간으로 세위서 완전한 목적론이 되어야만 인격의 통일성을 형성할 수 있고, 구체적인 행위를 지시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선호가 지속적으로 변하는 건전한 행위자를 설명한다면 이러한 목적론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롤즈의 주장이다. 아무리 신과 같은 합리적인 개선 가능성을 행위자가 갖더라도 시시각각 변하는 행위자의 선호를 고려에 넣는 순간 목적론은 행위를 지시할 수가 없다. 행위자의 선호가 어떻게 바뀔지 예측 불가능하다면 어떤 당사자가 가지게 될 모든 현재의 미래의 욕구의 전 범위를 가정적으로나마 고려했을 때 작동 가능한 일인칭적 설자가 없기 때문이다(Rawls 1971: 511).

지금 롤즈가 목적론에 대해서 치는 비판은, 앞에서 살펴본 롤즈에 대한 윌리엄스의 그릇된 비판과 유사하다. 앞에서 윌리엄스는 롤즈가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완벽하게 알고 있는 부당한 행위자를 가정하고 롤즈를 비판하였다. 이러한 비판의 근거에는 그러한 행위자가 현실에서부터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서 이로부터 나온 논의가 건전하지 못하다는 생
각이 놓여 있다. 그런데 지금 밝혀진 롤즈의 논의를 통해서 그의 비판이 정밀로 초점을 잘못 찾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롤즈가 그러한 행위자 를 가정하는 이유는 이러한 행위자를 가정해 보더라도 목표론으로는 동일된 인격을 세울 수 없고 지적하기 위해서이다. 목표론은 완벽히 합리 적인 행위자에 대하여 그 행위자의 선호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해야만 동일된 인격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롤즈는 이 가정으로부터 목표론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현실에서부터 더욱 동떨어진 불길한 한 행위자가 필요하다는 비판을 이끌어낸다.

반면, 목표론과 달리 올음을 종종에 비해서 우선하면 별다른 문제 없 이 인격의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로서 도덕적 인격에 대한 해평으로부터 평등을 지지하는 두 번째 논변이 완성된다. 단지 규제적으로만 작동하는 정의에 의해서 확보되는 인격의 동일성에 대한 롤즈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어떤 인격체가 정의를 그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목적들보다 우선시한다고 보자. 이와 같은 당사자는 어떤 가치관이든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가치관이 정의의 원칙, 즉 평등에 대한 우리의 직관에 어긋날 때에만 이를 수정한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는 우연적 요소들에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부터나려진 정의관을 자기 인격에 근간에 두고 나 시 현실적이고 개별적인 요소들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받아들일 세부적 인 원칙들을 정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이 과정을 반복하더라도 그의 인격의 근간에는 정의가 놓이게 된다(Rawls 1971: 566).

이처럼 정의가 인격의 근간에 놓이면 평등의 두 의미 중 평등한 권리 가 보다 분명한 것으로 보아야지게 된다. 여기에서의 정의는 앞에서 다룬 롤즈의 두 원칙으로, 이 두 원칙은 인간에게 평등한 최대한도의 자 유와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이라는 키다란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롤즈의 정의론은 비록 현실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기기는 다소 어려도, 경험에서부터 벗어진 지점에서부터 시작하는 혼들리지 않는 규제적 직관이 되어 평등의 불확실한 의미를 해명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롤즈를 이처럼 이해한다면 롤즈에게 제기되는 다른 난점 도 잘 해결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롤즈에 대해 제기되는 유명한
문제 제기 중 하나로 의료자원배분문제와 같은 특수한 문제에서 41) 차등의 원칙이 가지는 반직관성이다. 의료자원을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분배한다면, 어떤 경우에는 사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비용을 끄어야만 한다. 이 사회는 재화의 절대 부족에 시달리게 될 탄데이처럼 극심한 희생을 요구하는 사회가 과연 정의로운 사회냐는 질문이 이 비판의 핵심이다. 게다가 이에 대한 롤즈의 대답 역시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롤즈는 이러한 평등 문제에 대해서 능력의 평등, 즉 특수한 결과적 평등 개념을 적절하게 받아들여도 나쁠 것이 없다는 기이한 답변을 내리는데, 이러한 대답은 정의론에서 나타나는 차등의 원칙이 반직관성을 갖게 됨으로써 반직관성이 되기도 하며, 이는 사회의 재화의 절대 부족에 시달리게 될 탄데이처럼 극심한 희생을 요구하는 사회가 과연 정의로운 사회냐는 문제에 대한 생각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42) 그라나 롤즈가 말하는 다층적인 평등의 의미와 정의의원의 추상적 특징을 이해하면, 그의 정의론에서 나타난 평등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나타난 적절과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구체적인 맥락에서 나타나는 적절은 정의의 원칙을 고찰하는 추상적 맥락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각도로 평등에 대해서 접근하는 논의들, 혹은 더 구체적인 경우를 고려하여서 나타난 논의들은 평등에 대한 롤즈의 논의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롤즈가 논하는 다층적인 평등을 받아들인다면, 비록 그 추상성에도 불구하고, 규범성 일반에 제기되는 문제인 도덕운의 문제나 해석상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게 되는 한편, 평등에 대한 우리의 복잡한 적절을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얻게 된다.


42) 이 논의는 각주에 등장하는 것인데, 여기에 따르면, 의료자원배분에 있어서의 가치(good)배분 문제는 정의의 문제를 다룰때보다 복잡한 기본 가치 개념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는 어쩌면 선의 능력평등과 같은 개념을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다만 본문에서는 롤즈가 정의의 원칙에 대한 문제는 보다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논의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도 우리는 롤즈가 평등의 문제, 즉 정의의 문제를 다층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Rawls 1982: 369)
5.3.3. 쉐플러의 롤즈와 임의적 분배의 문제

이제 우리는 운의 중립화의 두 번째 문제인 정치철학에서의 임의적 분배의 문제를 어떻게 롤즈가 해결할 수 있는지를 정리할 수 있다. 운의 강한 영향력을 고려해 보면 어쩌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분배적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임의적 분배가 나타날 수 밖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임의적 분배 문제의 기원이다. 그래서 당사자의 용분 속에는 임의적 분배를 어느 정도 인정할 수 밖에 없으나, 그것을 인정해야만 하지 않겠느냐는 노직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생산물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해서 논하는 종국결과적, 혹은 운-평등주의적인 롤즈의 해석은 그 독단성을 비판하는 노직의 반론에 취약하다.

그러나 거시적 규범성의 핵심은 이러한 세세하고 개별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쉐플러가 해석하는 롤즈의 핵심적인 직관이며, 이 때 우리는 임의적 분배의 문제에서부터 자유롭게 된다. 정치철학적 규범성은 규범성에 대한 거시적 접근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때 우리는 사회적 생산물을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이끌어내는 원인에 대해서 논의하게 된다. 그래서 이 정의관은 데어 ‘사회의 기본 구조’를 그 주제로 하는 ‘절차적’ 입장이 되며, 이때에 임의적 분배, 즉 운이 개입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임의적 분배는 현실적이고 개별적인 결과물을 상정할 때에 개입된 운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데에서 생기는데, 지금 고려되는 절차적이고 구성적인 방식에서 고려되는 결과는 일반적 원칙을 통해서 산출될 대상일 뿐 현실적 결과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의론은 다소 추상적이긴 하지만, 평등의 불명확한 두 의미 중 어느 쪽이 본질적인 지를 해명하게 된다. 롤즈는 규범성의 다른 근거인 평등이라는 표현에 공정한 차등을 인정하는 의미와 공평한 권리를 추구한다는 다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나아가 도덕적 인격이 평등의 근거임을 지적한다. 이 도덕적 인격은 그 자체로 권리의 평등의
우선성을 지지하다. 또한 도덕적 인격의 통일성을 정의권을 목적론적 가치권보다 우선시해야 구상 가능하다. 이 정의권은 다시 권리에 대한 평등의 우선성을 지지한다. 이와 같은 롤즈의 논의는 여어서 정의권이 규범성 일반에 대한 논의에서 한 중심을 차지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며, 평등에 대한 두 직관 사이의 우선성에 대한 설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6. 결론

나는 이 논문에서 정의론에서 롤즈가 핵심적인 요소로 사용하는 ‘운의 중립화’라는 적관에 반대하며 제기되는 두 가지 방향에서의 공격에 대응하려 하였다. 롤즈가 사용하는 운의 중립화의 의미는 운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평등주의적인 의미도, 운에서부터 생기는 분배적 차이를 경감시키거나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보상적인 의미도 갖지 않는다. 이와 달리 그는 운의 중립화를 규범성의 핵심인 정의를 논할 때에 운이 개입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이 운의 중립화는 도덕에 대한 칸트적인 관점을 정치철학적 논의에 연결시킨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롤즈가 차동의 원칙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적관으로 작용한다.

운의 중립화에 대한 두 반론은 윤리학적 반론과 정치철학적 반론이다. 윤리학적 반론은 운의 중립화의 근거인 통제 원리가 규범성의 필요조건일 수 없기에 이를 핵심으로 삼아서 규범적 이론을 전개할 수 없다는 반론이며 그 핵심 근거는 운이 개입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윤리적 판단, 즉 도덕운의 존재이다. 도덕운의 존재를 지지하는 두 근거는 결과주의적 판단과 담당가 가능성을 함축한다는 칸트적 적관이다. 결과주의적 판단은 운이 개입되는 사례에서 나타나는 좋은 못한 결과에 대한 직관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정에 주목한다. 이 적관에 의해서 우리는 통제 원리할 수 없었던 결과에 의해 좌우되는 윤리적 판단을 받아들이게 되기에 규범성은 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두 번째 근거는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사건에는 운이 개입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자명한 현실
서울대학교

에서 시작한다. 여기에 가능은 당위를 함축한다는 칸트적 직관을 받아들여 이처럼 막을 수 없는 운을 중립화하기를 도덕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이처럼 윤리학의 카다란 두 줄기에서 운의 중립화에 반하는 결론이 이중으로 도출된다.

그러나 앞서 강력히 보이는 윤리학적 반론은 막락의 차이로 인해서 롬즈가 말하는 운의 중립화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없는 반론이다. 운의 중립화는 정당한 정의관을 세우기 위해 가정되는 도구이고, 이를 통해서 도출되는 정당한 정의관은 거시적인 정치철학적 막락에서 논의된다. 하지만 윤리학적 반론들은 이러한 거시적 막락이 아니라 개별적인 인간의 책임을 묻는 막락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책임과 관계된 윤리학적인 반론은 현실적인 행위자가 ‘순수한 행위자’가 아니라라는 정도의 주장뿐, 롬즈의 거시적 이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될 수 없다. 다만 윤리학적 반론이 뛰어들고 있는 운의 광범위한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정치철학적인 논의에까지 운의 문제를 확장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이 운의 방대한 영향력을 근거로 나타나는 롬즈에 대한 정치철학적 반론이 임의적 분배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노직의 주장이다. 노직은 임의적 분배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을 위해 우선 중극결과적으로 롬즈를 해석한다. 이 때 롬즈의 임상은 사회의 생산물을 운이 최대한 개입되지 않게 분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해석되어게 계획이산출되는 역사적 과정을 무시하는 중극결과적 성격을 갖게 된다. 다시 노직에 따르면 모든 중극결과적 임상은 자율적인 개인들이 가지는 소유에 대한 권리무시하겠는 부단한 관점이기에 합당할 수가 없고, 이와 반대로 소유물의 기원을 따져 물을 수 있는 역사적 관점을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이 소유물의 역사적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임의적 분배가 개입될 수밖에 없지만, 노직에게 있어서는 이런 간접한 정의관이 여전히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노직의 이론 역시 임의적 분배에 대한 모순적 근거를 떠안게 된다. 노직이 롬즈를 공격하기 위해서 드는 근거는 권리에 대한 칸트적 주장이다. 그가 해석한 칸트는 인간이 가지는 신성 불가침의 권리에 주
목한다. 이 때 한 행위자가 특수한 역사적 맥락에서 자신의 ‘여건과 제능에 따라’ 자율적으로 생산하게 된 소유물은 누구도 간드릴 수 없는 그의 소유권에 의해서 보장된다. 그런데 이처럼 노직에 의해서 해석된 칸트는 선의지에 대한 칸트의 입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칸트의 윤리에 있어서 근본 개념이라고 할 만한 선의지에 대한 강조를 따라가면 여건이나 재능과 같은 우연적 요소를 최대한 배제한 상태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인간이 자율적으로 형성하는 의지와는 달리 타율적으로 운의 영향 아래에서 갖게 되는 요소여기 때문이다. 그로나 노직의 분배적 정의론은 이 요소들을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노직의 분배적 정의론의 근거는 칸트적이면서 칸트적이지 않은 요소를 가지게 되기에 그의 이론 또한 임의적 분배에 대한 부당한 설명밖에 줄 수 없다.

그런데 손플러가 절차적으로 해석한 롤즈의 이론은 현실적인 결과를 정의론에서 배제하기에 임의적 분배의 문제나 운의 중립화에 대한 도덕적 공격에서 자유롭다. 손플러가 해석한 롤즈는 정의의 대상이 ‘사회의 기본 구조’라는 점에 주목하여 결과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무지의 배일 속에 넣는다. 이렇게 해석된 롤즈의 이론에서는 특정 시간 단면이나 재화 또는 소유물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이를 분배하는 과정에 집중하여 분배적 정의의 이론을 구분하는 노직의 기준을 벗어나게 된다. 또한 도덕운의 문제는 현실적 결과가 개입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이 해석에서는 그런 요소들이 전부 무지의 배일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도덕운의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또한 여기에서 고려되는 결과는 당사자들이 승인할 원칙에 의해서 산출될 결과이기에 손쉽게 무시되고 원초적 입장의 행위자들이 어떤 원칙에 합의할 내용만이 문제로 남게 된다. 이처럼 합의에 주목하는 정의론은 ‘절차적’정의론이 된다.

이렇게 절차적으로 해석된 롤즈의 이론은 비록 정의론을 상당히 추상적으로 만들지라도 그 특징으로 인해서 규범성의 분질에서 고려되는 평등의 의미를 해명하기에 이른다. 손플러와 같이 해석된 롤즈는 정치철학에서 임의적 분배의 문제를 추상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재화
의 배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기 어렵게 된다. 그때 샤플러의 롤즈는 현실적인 재화의 배분 문제를 다루지 않는 추상적인 정의관은 부당하지 않느냐는 노적의 반론에 취약하다.

하지만 롤즈를 추상적으로 독해할 때 우리는 평등의 근원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롤즈는 다소 추상적인 정의관을 통해서 평등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며, 그로서 평등의 두 가지 의미, 즉 공정한 대우와 공평한 권리 중 공평한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아야 할 근거를 제시한다. 이는 정의관이 평등의 수준을 탐구할 때 그 근거로 나오는 ‘도덕적 인격’의 통일성이 목적론이 ‘자체적 목적’이 아니라 행위자의 가치관에 대해서 규제적으로 작용하는 합당한 정의관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본 논문의 결론은 규범성의 영역 일반에서 운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함축하지 않는다. 롤즈를 운의 문제에서 자유롭도록 해석하더라도 거기에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경험으로부터 최대한 벗어진 특수한 행위자가 가지게 될 규범성인 정의관에 대한 판단이다. 이러한 정의관은 우리의 자연을 구성하는 데에 매우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규범성의 전체를 설명할 수 없기에 개별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운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다만 이 논의에서 밝히려 시도한 것은 규범성에 대한 개인적 접근과 사회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할 때에, 롤즈와 같이 생각된 사회적 규범성의 핵심적 의미 중 일부가 운과 관련되어 생기는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것이 뿐이다.
참고문헌

황경식, (1986), 사회정의의 철학적 기초, 문학과 지성사.
Kant, I., (1786/1933),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GMS), Verlag von Felix Meiner.
Lippert-Rasmussen, K., (2009), "Justice and Bad Luck", Stanford


Blackwell Reference.
Abstract

A Justification of Rawls’ Neutralizing Luck

Hyun-Woo Lee
Department of Philoso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the publication of John Rawls’ famous book, *A Theory of Justice*, Distributive Justice has been placed center of Political discussion. His Conception of Justice is mainly based on a claim which normative discussions should be freed from luck. This claim is named ‘Neutralizing Luck’. One aim of this thesis is to point out how Neutralizing Luck is connected with Kant’s ‘Control Principle’. The other goal of paper is to defend Neutralizing Luck from against two objections: Ethical and Political.

In the Second chapter, I consider the way of Rawls’ use of Neutralizing Luck and its Kantian origin. Rawls proves his principles of justice by two arguments. First argument is the Intuitive equality of opportunity arguments and second argument is the social contract argument. Rawls uses Neutralizing Luck to build their premises. And by looking into his paper, “Kantian constructivism in Moral Theory”, we can notice Neutralizing Luck
was originated from Kantian concepts like “Autonomy” or “Good Will”.

In the chapter 3 and 4, I introduce ethical objection against Neutralizing Luck and its further discussions. Nagel and Williams both gave first objection which based on Moral Luck. Nagel used Kantian concept to support Moral Luck, while Williams used Consequentialism. However, this objection cannot make a direct attack to Rawls’ theory because their attack was focused on micro event, whereas Rawls’ theory handles macro principle. However, after their first attack to Kantian Control Principle, there have been plenty of disputes so this objection can make huge problems to normativity. I discuss them shortly in chapter 4 to understand how the first objection can reach political area.

Chapter 5 chiefly deals with Robert Nozick’s two political objections against Rawls’ Neutralizing Luck. The former objection claims that reasonable theory of justice should accept ‘Arbitrary distribution’. The ground of this objection is Kantian concept of inviolable right and Nozick’s interpretation of Rawls. Thus, by accepting Sheffler’s macroscopic interpretation of Rawls, I can deny this objection. Nevertheless, Sheffler’s macroscopic interpretation cannot avoid Nozick’s latter objection since it attacks macroscopic theories of justice. Nozick gives Plato’s intuition to support this objection: A true reasonable theory of justice should correct in both macro and micro point of view. In other word, a reasonable theory of justice needs proper function. I propose Rawls’ macroscopic theory can elucidate twofold meaning of ‘Equality’, which is basic concept of political normativity so is has its own proper aim so it has its own proper function.
Keywords: Justice, Rawls, Neutralizing Luck, Moral Luck, Nozick, Arbitrary distribution

Student Number: 2010-22962